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정혜실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정혜실

인 준 서

정혜실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1990년대 초반 부족한 3D업종의 노동력의 확보를 위해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과의 결혼은 국제결혼의 양상을 바꾸어 놓는다. 이는 국제결혼이 외국으로 이주를 의미했던 것에서 한국에서 정주화 하는 방향으로 변화 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어떻게 국제결혼 한 여성들을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서 왜곡된 사회적 언설을 해체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또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며, 계급차별적인 국가의 법체계를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이 어떻게 도전하고 경합하고 타협하는 가를 보여줌으로서 여성의 주체성을 읽고자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혼혈인으로 규정됨으로 인해 드러나는 단일민족신화의 순혈주의에 도전함으로써 신화를 해체하는 주체일 뿐 아니라 혼혈의 의미를 어떻게 전복하고 있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이슬람에 대한 문화를 통해 어떻게 다문화를 전유하며 타문화와 갈등하고 협상하고 수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며, 파키스탄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확대해석하는 여성들의 의식변화를 추적하고, 여성의 집단적 주체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이라는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한국사회로부터 얻게 되는 여성의 성적체성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평가와 달리 한국여성 스스로는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의 주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파키스탄 남성과 결

혼한 한국여성들 중 연구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프리챌의 커뮤니티인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모임의 여성들은 20대에서 40대 후반까지의 여성으로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이며 회원활동 2년 이상의 기혼여성들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들은 인터뷰에서 파악되지 않는 다양한 여성들의 의식을 볼 수 있는 글이었으며, 온라인 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은 오프라인 모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10명의 회원들과 심층면접을 통해 살펴보았다.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은 먼저 국제결혼에 대하여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여성주의로 읽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해서 고찰한 장이다. 우선 국제결혼에 대한 고찰은 국제결혼에 대한 의미와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이유 그리고 그 부정적의미를 변화시키고자 시도되는 다양한 용어의 등장과 그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결혼 관련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에 관한 연구의 부족함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연구논문이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여성 그리고 그 자녀들을 마이너리티로, 주변적 존재로만 분석함으로써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여성의 주체성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문이 오히려 여성을 주변적 존재로 고착화 시키는 효과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 다음으로 이러한 비판 위에서 여성주의로 여성의 주체성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성주의 이론을 통하여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의 배경으로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로서의 개념과 스피박, 벨혹스, 모한티의 탈식민페미니즘 이론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주체성 개념을 고찰한다. III장에서는 국제결혼의 현황과 법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국 내 국제결혼 비율과 파키스탄남성과 결혼 한 한국여성의

비율을 알아보고 있으며, 국제결혼과 관련된 법의 종류를 살펴봄으로서 국제결혼 한 가정들이 겪게 되는 차별과 억압의 맥락을 보고자 한다.

IV장과 V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와 법을 토대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의 주체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IV장에서는 한국의 가부장제적이면서 성차별적인 법제도인 호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여성이 호주가 됨으로서 갖는 주체로서의 경험과 가부장제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으며, 부계혈통적인 국적법의 개정을 통해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바꾸어내는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종차별적인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대한 도전과 타협을 통해 남편의 신분적 지위를 바꾸어 거주권과 생존권 그리고 노동권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의 주체성이 이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본다. 마지막으로 귀화라는 과정을 통해 남편이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시 남편이 호주가 되고 여성이 그 밑으로 편제되는 과정을 단순히 가부장제로 재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신분적 안정과 인종적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택한 여성들의 타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한국여성의 성이 남편의 성과 자녀의 성으로 승계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로써 국제결혼 한 여성의 존재가 첫째 어떻게 성차별적인 법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둘째 변화의 주체로서 드러나는 여성의 존재를 어떻게 일깨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가부장제적인 법제도의 모순을 드러내고 도전하고 타협하는 여성을 통해 여성의 행위 주체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적 경계와 민족과 인종의 경계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넘어 여성들이 탈식민화된 주체의식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호명하는 혼

혈인의 의미를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성을 드러냄으로서 그 의미를 전복하고자 하며, 혼혈의 자녀를 둔 여성들이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의식화 과정과 현실적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문화와 일상에서 어떻게 갈등하고 타협하는지를 보여줌으로서 다문화를 전유하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보여주고, 파키스탄으로 공통점으로 모인 여성들이 공동체의식을 어떻게 확대 해석해 가고 있는지를 파키스탄 지진 모금 운동과 9.11 테러이후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속에서 추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의 정보기관에서 하는 조사활동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의 무슬림 남편들과 무슬림 이주노동자가 분리될 수 없으며, 이슬람세계까지 관심의 확장을 넓혀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과정은 여성의 집단적 주체성 즉 공동체적 주체성을 볼 수 있는 연구이다. 끝으로 파키스탄이라는 외국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한국사회가 평가하는 여성의 성(sexuality)과 그러한 외부적 시선과 달리 여성자신이 보여주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보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2.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8
II. 이론적 배경	15
1. 국제결혼의 현황과 담론	15
2. 여성주의로 여성의 주체성 읽기	26
IV. 법적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타협	38
1.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 : 호주가 되다	38
2. 남편의 비자 : 가부장제적 성차별과의 싸움	45
3. 남편의 귀화 : 가부장제로의 재편입인가 타협인가?	50
V. 탈식민여성주체로 경계 넘기	62
1.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62
1) 단일민족 신화 깨기와 혼혈의 의미 전복하기	62
2) 다문화주의를 전유하게 하는 이슬람문화와 일상에서 만나기 ·	74
2. 집단적 주체로서의 여성 : 공동체(Community)	87
3.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 한국여성의 성적 주체성	96
VI. 결론	109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특성	14
<표2> 외국인과의 혼인	22
<표3> 2001년~2005년 외국인 국적별 혼인	23
<표4> 국제결혼과 관련한 체류자격의 종류	24

I. 서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990년대 초반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3D업종의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들을 유입하는 정책을 모색했던 한국사회는 종전의 국제결혼과는 다른 양상의 국제결혼을 접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의 국제결혼이 미군정을 시작으로 미군과 결혼하여 한국을 떠나던 형태이던 것이, 이주노동자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주로 한국에서 정주하는 모습으로 변모한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증가 할수록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주 노동자의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혼을 통해 한국에서 정주하는 숫자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한국여성들이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의 출신국은 다양하다. 주로 동남 아시아인으로 지칭되어버리는 그들의 몰 국적성과 몰 인종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시아 각국, 때로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다양한 국적과 피부색의 소유자들이다. 또한 기독교국가, 불교국가, 이슬람국가, 사회주의, 옛 공산주의 국가 등 그들은 종교와 국가 정체성의 배경도 다르다. 따라서 국제결혼 한 여성들은 음식, 자녀양육방식, 종교행위 등에서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상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거쳐 부부관계를 조율해 왔다.

또한 한국여성들이 선택한 이주노동자들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자¹⁾,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자, 미등록 외국인노동자, 현대판 노예²⁾ 등으로 호명되었

1)코리안 드림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경제 호황기에 한국으로 취업을 위해 들어온 외국인들을
향해 자기만족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우월감에 비롯되어 아메리카 드림에 상응하는 사회적 언
설로서

고, 이로 인해 여성들은 함께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주변적 존재, 하층계급으로 전락되거나, 다른 인종과 결합하여 혼혈인을 출산함으로써 순혈적인 단일민족의 정체성을 흠집 내는 불순한 여성³⁾이자, 양공주⁴⁾나 못 배운 여성⁵⁾들로 간주되었다.

유포되었다. 그 후 정착된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의 산업구조상 발생한 3D업종의 구인난 해결과 저

임금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서 정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일이다.

- 2) 산업연수제도의 폐해를 목도한 시민단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임금의 체불문제와 노동착취, 인권유린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졌다. 대표적으로 설동훈과 박노자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그들의 비자 목적 외 활동 즉 산업연수생이라는 출입국상의 비자 목적을 이탈했다고 해서 그들을 불법체류자로 분류함으로써 불법에서 오는 범죄성의 이미지를 강화해 왔다. 그것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홈페이지에는 불법을 왜 돕는가? 라면서 불법을 부추기면서 한국사회의 해를 끼치는 인간들로 단체장들을 욕하기도 한다. 특히 박노자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아웃 사이더>라는 저널 9월호에서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특집으로 내면서 ‘한국판 노예제 철폐를 위해서’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물론 이러한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를 하다보면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한 법적 제도와 정책 그리고 인권을 비판하는 데는 적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 이주노동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고착되는 부작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이는 노예라는 이미지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을 읽어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며, 이주노동자들을 피해자라는 구도에 가두기 때문이기도 하다.
- 3) 캐서린 H.S 문은 기지촌여성들이 미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혈인을 한국사회가 따돌리면서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여기고 몸도 영혼도 한국인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성리학적 도덕주의가 여성의 순결과 강한 인종주의적 의식으로 여성들을 ‘불순한’ 존재로 이중적인 오명을 씌웠다고 보았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현재의 이주노동자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들에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조할 것. 『동맹속의 섹스』 이정주(역), 2002, 삼인
- 4) 김현숙은 ‘양공주’라는 용어가 외국 군인을 대상으로 성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들을 지칭하는데 사용한 용어로서, 한국인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노동자들에게는 이 말을 쓰지 않는다고 보고, 이것이 외국인 남성을 상대로 군대 매춘에 종사하는 한국인 여성을 매춘이라는 위계에서도 최하위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는 용어 사용의 범위가 더 넓어져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국인 여성들까지 포괄하게 되었다고 본다. 더구나 전후 한국에서 ‘양공주’는 인종간 결혼을 한 한국여성들로 확대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공주’라는 용어의 유포는 일반 소설, 영화, 그리고 TV프로그램 같은 대중적이거나 민족주권과 민주화를 외치는 진보적 텍스트 속에서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고 유통시켜 왔음에 문제 제기를 한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책을 참조하라. 「민족의 상징, ‘양공주’-진보적 또는 대중문화 텍스트 속의 노동 계급 여성의 재현」, 『위험한 여성』 일레인 김, 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2001, 삼인
- 5) 각주3)의 같은 책에서 1950~1970년대에 기지촌여성들의 학력은 거의 대다수가 초등학교도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사회적 연설에 대하여 균열을 내고자한다. 이러한 논의는 파키스탄 이주노동자 남성과 결혼 한 한국여성들의 주체성⁶⁾을 살펴봄으로서, 국제결혼에 있어서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한국사회의 보편적 연설(편견, 고정관념)을 해체하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연애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의 반대를 이겨내야만 하는 여성들은 설득이라는 수단으로, 때로는 독립적으로 가족과 분리해 나옴으로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랑을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독립적인 인격적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며, 주변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내고 자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을 감행한 한국여성들이 직면한 어려움은 가족의 반대만이 아니다. 한국여성들은 결혼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혼인신고에서부터 자녀출산 후 국적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면해야만 한다. 남편의 신분이 그 체류자격에 따라 불법체류인지, 관광비자인지, 산업연수생인지, 투자비자인지에 따라 혼인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같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혼인신고 후에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마치지 못하였으며,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그 여성들 사이에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이는 초기 기지촌 여성들이 부모 중 한명 또는 모두 잃었거나, 많은 가족구성원들을 부양할 수 없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1p). 이러한 인식은 미군을 상대로 한 한국여성들 그리고 미군과 결혼까지 한 여성들은 저학력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식이 한국사회에 팽배했었다. 그러한 인식은 그 후 이주노동자와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이주노동자와의 만남이 공장이나 어디 술집 같은데서 만났을 거라는 편견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6) 주체성은 영문표기로 Subjectivity, Agency, Plural Subjectivity로 말할 수 있는데, Subjectivity일 경우 해석은 그냥 주체성으로, Agency일 경우에는 행위주체성으로, Plural Subjectivity는 다중적 주체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의 주체성은 단순히 Subjectivity로 해석될 수 없는 주체성으로 여성들의 행위성을 드러내고 주고, 또한 그 여성들이 이주노동자와 결혼 함으로서 인종과 젠더, 민족, 국가, 문화, 종교의 문제와 중첩되는 지점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을 다중적 주체이면서 탈식민주체로서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여 괄호 안에 영문쓰기를 할 수 없었음을 일러둔다. 따라서 논문의 맥락에 따라 주체성, 행위주체성, 다중적 주체성, 탈식민적 주체성으로 쓸것이다. 주체성에 대한 깊은 논의는 뒤의 이론적 배경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하는 생존과 노동의 문제가 대두된다. 더욱이 자녀까지 출산하고 나면 혼인 신고 여부에 따라 그 자녀는 무국적자가 되기도 하고, 미혼모의 자녀가 되기도 하며, 남편의 국적을 따라 외국인으로 되기도 한다. 그러한 상황들은 한국여성들로 하여금 불안한 가정을 유지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신분적 불안함이 때론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가족이 이산되는 위기도 경험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들은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상당히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를 추동해 온 배경에는 한국여성들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타협이 그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한국적 민족주의인 단일민족의식과 차별적 인종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교육과정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서 인식되어 온 단일민족신화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서구 백인에겐 우호적이지만 피부색이 검은 제3세계국가 출신일 경우에는 비하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인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일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종적 차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사적 배경인 단일민족 신화가 사실상 허구적 신화이며, 혼혈인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국여성의 의식과 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특히 남편의 비자와 관련해서 출입국관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그 직원들의 방문을 받아야 했던 여성들은 그들의 태도에서 모욕을 느끼기도 하고, 잘사는 나라에서 온 소위 1세계 국가의 서구 남성들에 비해 자신의 남편이 다르게 취급 받음으로서 인종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적인 공무원의 태도에 대해 한국여성들은 대면해서 당당히 이야기하거나, 이들과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9.11 테러이후 미국의 대테러와의 전쟁에 포섭되어버린 정부가 이슬람을 종교로 믿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하

고 그들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국제결혼가정들에게 전화하거나 이들 가정을 방문하였고, 때로는 프락치(정보원)가 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 공무원의 태도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온 태도라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일견 한국사회가 얼마나 서구문화중심주의에 매몰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였고, 또한 일상에서 부딪히는 이슬람문화와 차이에 대해 갈등과 타협을 통해 조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6년 현재 법은 변화된 것이 사실이다. 본문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진행 되겠지만, 현재로서의 법은 결혼만 하면 합법적인 체류비자도 받을 수 있고,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거주가 2년 이상만 되면 귀화도 쉬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못한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과 정부정책지원의 성차별적 시행에 대하여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때이다. 이는 최근 여성가족부 산하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의 정책지원이 이주여성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서 오히려 같은 국제결혼 한 여성 중 한국여성들을 소외 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의 차별성은 여성과 남성을 분리주의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결과로서, 이주여성을 한국남성의 가부장제의 의해 피해당하는 억압된 여성으로서만 그 주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주남성에 대해서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그 이주남성과 결혼 한 한국여성은 한국인으로서 얼마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배제시켜 왔다. 하지만 그 배제의 이유엔 여전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여성에 대해서는 ‘출가외인’이라는 관념과, 이주여성은 한국적 가족제도에 편입시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여성들이라는 가부장적 사고가 더 팽배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연구자가 참석한 각종 공청회나 정책관련 토론회의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발표 되어 온 각종 여성주의적 학술 연구조차 이주여

성에게 좀 더 많은 비중을 할애 하고 있는데, 이는 특히 전지구화와 이산 그리고 제3세계 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수록 더욱 그랬다. 물론 연구자들은 이주여성을 한국에 적응해야 할 존재로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들이 처한 억압적 상황을 가시화 시키려는 의미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가 보기에는 여성학조차도 이주남성들이 겪고 있는 차별적 상황이 그들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한국여성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함으로서 다시 한국여성들을 배제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지구적 자본주의 시대에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국제노동분업⁷⁾으로 인해 한국으로 유입된 이주노동자와 결혼을 한 한국여성들에 대한 연구로서, 이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어떻게 가부장제적인 법제도를 통해 억압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억압들에 대해 어떻게 저항해 왔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저항이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법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으며,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한국여성들의 행위주체성(agency)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적과 얼굴생김새 그리고 피부색이 다른 남성과 결혼함으로써 눈뜨게 되는 민족주의와 순혈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와 인종주의에 대하여 여성들의 주체성이 어떻게 충돌하고 경합하고 협상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또한 여성의 주체성이 성이나 젠더만의 문제가 아닌 계급이나 인종 그리고 문화나 종교와 같은 중첩적인 문제들을 포함하는 다중적 주체

7) 국제노동분업은 '세계화'라는 생산, 노동, 시장의 지구적 변화를 통해 20세기 후반 다국적 기업의 자본이동시스템이 제3세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된 것을 말한다. 이는 제3세계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적으로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신 국제노동분업'은 서구의 자본과 비서구의 싼 노동력이라는 관계에서 벗어나, 서구나 아시아의 경제 부국 내부에서도 초기 산업화 형태의 열악한 영세 사업장의 확산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노동 착취적이며 영세적인 제조업 분야에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여, 국제적이며 국내적인 하청 체제를 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2005, 또하나의 문화

(plural subjectivity)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여성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파키스탄 커플모임’의 의의와 그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확대 해석하는 공동체의 개념을 통해 파키스탄이라는 국가와 이슬람 세계 그리고 전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집단적 주체로서의 여성의 행위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보고자하는 것은 한국여성의 성적 주체성이다. 먼저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하여 한국사회가 어떻게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는 가를 볼 것이며, 이러한 왜곡된 해석이 한국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한국여성들이 이야기하는 부부관계(성적관계)를 통하여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성적 주체성을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연구자가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당사자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자의 경험은 이 논의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하게 하였다고 본다. 연구자 자신이 여성주체로서 살아 온 경험들은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한국여성들의 주체성에 대한 인식은 본문의 분석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2. 연구방법과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파키스탄 커플모임(<http://home.freechal.com/pakistan>)’이라는 커뮤니티 회원들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2002년부터 이 모임에 회원자격으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본연구자가 2000년도부터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현재 안산이주민센터로 개칭됨)의 부설기관인 ‘코시안의 집(KOSIAN HOUSE)’⁸⁾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파키스탄 커플 모임’을 알게 되었다. 2004년까지 이곳의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본 연구자는 국제결혼 한 커플들을 다양하게 만났다. ‘코시안의 집’의 국제결혼 커플들은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러시아 등등 국적도 다양할 뿐 아니라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또는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들이라는 대칭적 구조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코시안의 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유대를 가지고 있는 ‘파키스탄 커플모임’을 선택한 이유는 이 모임이 자조모임으로서, 단체의 직접적인 지원 하에 인위적으로 구성된 것이 아닌 여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이기 때문이다. 자발성이라는 것은 여성의 주체성을 보고자 하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당사자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 모임에서 4년여 이상을 활동하고 있으며, 이 모임과 ‘코시안의 집’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임의 회원들은 자신들과 무관하지

8) 코시안의 집에 대한 의미는 KOREAN과 ASIAN의 합성어이다. 코시안(KOSIAN)은 단순한 단어의 결합을 넘어 ‘평등됨’과 ‘하나됨’의 철학과 인권의 사회적 실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코시안의 의미는 크게 4가지로 사용된다. 국제결혼2세, 이주아동, 코시안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말이다. 전 안산외국인 노동자 센터, 지금의 안산 이주민 센터의 부설기관이다.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자 가정의 양육지원 사업과 방과 후 교실 그리고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않은 ‘코시안의 집’의 양육지원 사업과 여러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의 참여를 통해서 알게 된 여러 커플들과 형성된 친밀감은 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집들이를 통한 가정방문이나 일상적인 식사 초대, 생일 파티, 전화통화 등은 여성들의 삶과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출산 후에는 자녀 양육에 관하여 서로 도와주기도 하였다. 또한 정기모임과 상관없이 자주 만남으로서 서로의 관계는 언니로, 자녀들은 여성들에 대해 이모라고 불렀고, 그 남편들에 대해서 짜쭈(삼촌)로 부름으로서 서로에 대한 친밀성을 높여갔다. 이러한 친밀성을 통해 여성들의 부부관계, 자녀양육, 가족과의 관계 등과 같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참여관찰의 수준이 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일 온라인에 올라오는 글들은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분석 자료이며 참고자료이다.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화갈등과 그 차이에 대한 이해의 글들과 해마다 이슈화 되는 특별한 주제에 대한 의견과 그에 대한 답글은 여성들의 의식과 행위성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 자료였다. 그리고 자료실에 올려놓은 파키스탄 관련 문화정보나 각종 뉴스와 법등은 여성들이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에서 여성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 있는지를 알게 하는 자료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온라인에 올라 온 글들이다. 2000건 이상이 되는 글들 중에서 연구주제와 부합하는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따로 심층 인터뷰를 병행했다. 인터뷰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10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모임에 참여한 2002년부터 매월 모이는 오프라인 정기모임과 개인적 만남을 통해 참여 관찰은 이루어져 왔으며, 집중적인 심층면접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루어졌다. 인터뷰 장소는 각 회원들의 집이

나, 식당, 또는 안산외국인노동자 센터, 야외 등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시간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되었는데 이는 모임의 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함께 밤새워 이야기할 경우가 생기면 4시간 이상 이루어질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경우는 좌담회 형식으로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뷰에서 녹음기 사용이 가능할 때는 녹음을 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집단 좌담회 형식으로 함께 한 주제를 놓고 토론한 것을 기록하였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화통화와 실시간 채팅도 하였다.

사회적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연구 자료와 저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센터의 자료, 온라인 대중매체를 이용했으며,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자료와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의 자료 등을 참고로 했다.

본 논문의 연구참여자들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의 자조모임인 ‘파키스탄 커플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들이다. ‘파키스탄 커플모임’은 온라인상에서 2006년 현재 5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로서 한 달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대외적인 활동도 하고 있는 그룹이다. 대외적인 활동이라 함은 한 달에 한번 내는 회비를 모아 일정 수준의 금액에서 보내는 ‘코시안집’의 양육지원과 이주여성 블링크⁹⁾에서 주최하는 국제결혼가정 관련 각종 프로그램의 참여, 때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캠프행사를 치루는 일등을 말한다. 특히 2006년 8월에 있었던 캠프 행사는 지방에서 올라오기 힘든 커플이나

9) 이주여성블링크는 안산이주민센터의 부설기관으로 이주여성과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을 위한 상담소이다. 국제결혼에 관한 법적 절차와 가정폭력 상담, 문화차이에서 오는 부부갈등에 대한 상담등을 하고 있다. 블링크(BLINK)는 영문으로 Better In Life Korea의 약자이다.

새로운 커플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또한 부부갈등이나 의사소통과 문화이해와 자녀양육 같은 주제를 가지고 강의나 토의 그리고 퍼포먼스등도 함께 할 수 있었다.

온라인상의 커뮤니티 회원들의 구성은 다양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까지로 초혼에서 재혼한 여성까지 연령이나 결혼의 형태도 다양하다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 살고 있는 커플들만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등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무엇보다도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같이 활동하고 있어서 사실 국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거주하는 모임 회원들의 거주지는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울 경기지역이 사실상 다수를 차지하지만 대전이나 천안, 광주, 원주, 구미, 부산 등에 사는 회원들도 있으며,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는 자주 만나지만 오프라인에서 모임은 정기적인 참여는 힘들고 특별한 모임을 행사로서 치룰 때 한번 씩 만나게 된다.

이 모임은 파키스탄인과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의 수다의 장이자 고민을 토로할 수 있는 장이며, 서로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눌 뿐 아니라 함께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인 지지가 쉽지 않은 국제결혼이라는 특성과 제3세계의 이주 노동자라는 배우자의 특성상 가족의 지지조차 받기 힘든 상황에서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 주고 버팀목이 되어 준다는 의미에서 이 모임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모임이 되고 있다. 이 커뮤니티에서 논의 되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우선 혼인신고와 관련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법제도와 더불어 각 개인의 경험들 중에서 최근 것을 중심으로 매뉴얼 작업화 해서 업그레이드(upgrade)시켜 놓음으로서 정보의 접근이 쉽지 않은 여성들에게 누구나 알 수 있게 정리해놓고 있다. 이러한 작업은 특히 결혼을 앞둔 여성들

에게 귀중한 정보가 되고 있고, 출입국직원에게 묻는 안내전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개인이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들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경험을 함으로서 문제해결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파키스탄이라는 특정한 국가의 배경을 가진 남성과 연애중이거나 결혼생활 중인 여성들에게 이슬람의 문화와 파키스탄의 문화에 대해 지식을 교환하고 독서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기도 한다. 또한 각자가 알고 있는 파키스탄 음식 비법과 파키스탄의 독특한 전통 명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족문화와 결혼제도, 결혼식 등등의 정보들도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들을 나누고 있다. 특히 자녀를 낳은 여성들은 자녀들의 교육방식과 혼혈의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들을 진척시키기도 하며,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본인의 종교가 일상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갈등하고 타협하는지를 토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좀 더 심층 있게 나누기도 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온라인에서 충족되지 않는 친밀감을 더 확장해나가기도 한다.

이러한 정기적인 만남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남성들과 자녀들이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는데, 남성들 또한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적응문제와 비자문제 귀화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참여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족만이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만들며, 이 자녀들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에서 친구가 되기도 하고, 함께 문화를 공유하는 동지가 되고, 한국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잘 성장해서 서로에게 역할 모델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다.

이렇듯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기도 하

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하여 직시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고 변화시켜 낼 것인가를 능동적으로 수행해나가는 이 여성들을 통해 주체성이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심층인터뷰에 응해 준 연구참여자들은 회원활동 2년 이상의 회원으로서 결혼한 여성들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온·오프라인 모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며, 정기모임이나 기타 모임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모임에 대한 애정이 많고 국제결혼과 관련한 일들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여성들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은 본인의 인터뷰에 참여해준 여성들을 연령이나 결혼형태 자녀유무 그리고 학력과 종교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1> 심층면접 연구참여자 특성

성명(가명)	연령(만)	결혼형태	결혼기간	자녀유무	학력	종교
김숙희	48세	재혼	5년	전남편 아들2	고졸	무
김애숙	29세	초혼	3년	아들 1	대졸	이슬람
류진희	35세	초혼	10년	아들2	대졸	카톨릭
박재경	32세	초혼	5년	자녀 없음	대졸	기독교
이선미	35세	초혼	3년	아들1, 둘째임신	대졸	이슬람
이수진	29세	초혼	5년	딸 1	대졸	무
이희숙	41세	초혼	7년	딸 1	대졸	무
유진형	45세	초혼	5년	자녀 없음	고졸	무
윤소라	35세	초혼	12년	딸3 아들1	대학중퇴	기독교
정미경	40세	초혼	14년	딸1 아들 1	대졸	기독교

II.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의 현황과 담론

국제결혼이란 국적이 다른 남녀의 혼인을 지칭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국제결혼의 역사가 이어오면서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이러한 말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말이 생겨나고 있다. 2003년 7월에 있었던 이주노동자 자원 활동가를 위한 양성평등교육¹⁰⁾에서 ‘이중문화가정(국제결혼)에 대한 현황과 과제’라고 하는 주제의 강의를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영임¹¹⁾은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이중문화(Cross Culture)가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단체들에서도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중문화가정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남녀의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 뿐 아니라, 이러한 용어의 사용이 국적이라는 국가적 구분보다 더 열려있는 개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사랑이 매개된 결혼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브로커가 개입된 매매혼을 국제결혼에 포함시키기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브로커가 개입 되었다 할지라도 결혼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이유로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라는 용어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여성들을 부르고 있으며, 그 가정은 결혼이주민가정¹²⁾이라

10) 2003년 7월 10일에서 2003년 11일에 열린 이 교육은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 한 가정들을 위해 단체에 참여하는 활동가를 위한 모임이었다. 주최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여성노동자 상담소였으며, 주관은 국경을 넘어, 차별을 넘어, 평등세상을 여는 여성연대였고, 후원은 W(재)한국여성재단이었다.

11) 현재 안산외국인 노동자 센터의 부설기관 코시안집 원장으로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아이들과 한국에 사는 이주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양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들을 호칭하는 ‘코시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코시안이라는 단어는 이제 각종 신문이나 뉴스 매체에서 당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되었다.

고 부르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지원센터의 정책지원이 이주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루어지면서, 이주남성과 국제결혼 한 가정도 포함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에서는 공모를 통해 용어 바꾸기를 주도했는데, 응모된 여러 용어들 가운데서 ‘온누리안’¹³⁾을 선정하기도 하였다. 선정이유로는 세계적인 국제결혼을 포괄하고 혼혈인들을 존중할 수 있는 명칭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듯 국제결혼이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이미지화 된 이유에는 단일민족 국가관으로 형성된 타집단에 대한 배타성에 비롯된 것으로 본다. 민족과 국적이 다른 배우자와의 결혼은 민족 혈통의 정통성과 순수혈통에 대한 위협 요소로도 지적되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은 금기시 되었던 것이다 (조성원, 2000).

무엇보다도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만든 것은 1945년 해방이후 미군주둔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군의 성적 해소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개발된 기지촌이 생겨나고 한국의 여성들이 그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적대상으로 전락한 일명 양공주라고 호명되었던 여성들이 그들의 탈출구로 선택한 것이 미군과의 결혼이었으며, 국제결혼이라고 하면 미군과 결혼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적 인식은 국제결혼 한 여성을 몸을 판 여성과 동일시함으로써 곱지 않은 시선

12) 2006년 현재 여성부 산하 결혼이주민가정지원센터가 전국에 개설되어 국제결혼 가정의 실질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이야기한 브로커를 통한 결혼이든, 이주노동자와의 결혼이든 이들의 국제결혼 외국인들을 결혼 이민자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정부적 차원에서 주도한 용어 바꾸기의 실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3) 온누리안은 온 세상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온누리’와 사람을 뜻하는 어미 ‘-ian’가 합쳐진 합성어이다. 아시아 국제결혼 가정 뿐 만아니라 세계 각국을 어우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데다 외국인 누구나 쉽게 발음할 수 있는 명칭이라는 점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박용운기자 [경향신문] 2006년 3월 20일

으로 바라보았으며, 더구나 그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을 혼혈아로 지칭함으로써 혈통의 순수성을 흐려놓은 최악의 대상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이것은 혼혈인에 대한 차별을 강화시켜 왔으며,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다(전수현, 2002).

그러나 늘 부정적인 모습만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세계화에 따른 외국인의 자유로운 왕래와 더불어 한국인들의 국외로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도 그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사회적 명사들의 국제결혼¹⁴⁾과 스포츠와 연예계¹⁵⁾ 사람들의 결혼 그리고 국제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들의 활발한 방송활동¹⁶⁾ 등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국제결혼과 관련된 고고학적 저서¹⁷⁾나 소설¹⁸⁾ 그리고 국제결혼 한 여성의 자필수기¹⁹⁾의 등장은 더욱 국제결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 14) 조안리와 김영희 그리고 정치인 김종필의 필리핀 며느리, 롯데가의 일본인과의 혼인
15) 탁구선수 안재형 초지민 부부, 최근의 이미영의 미국인과의 재혼, 가수 박미경의 하와이 출신의 남성과의 결혼 등.
16) 귀화하면서 하일로 이름을 바꾼 로버트 할리와 이다도시, 귀화한 독일인 이참 등
17) 고고학 교수 김병모가 출간한 「김수로왕비의 혼인길」이라는 책은 삼국유사에 나타난 김수로왕의 국제결혼에 대한 기록으로, 이는 1세기경의 가야가 인도의 한나라였던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인 허황옥과 결혼한 사실을 역사추적 형식으로 쓴 책이다. 허황옥 일행의 한국도착을 고대 세계의 이민과 물물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서, 한국인의 몸속에 외국인의 유전인자가 스며들게 된 사건이 되었고, 그와 함께 외국의 문화인자도 한국 문화 속에 섞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책이다. 이 책은 고고학 탐사 형태의 책으로 저자 자신이 김수로왕을 시조로 하는 후손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종전의 단일민족 신화를 깨는 고고학적 저서라 할 수 있다.
18) 박범신(2005)이 출간한 『나마스테』는 네팔 이주노동자와 한국여성의 사랑이야기와 이주노동자로서의 삶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어느날 집으로 들어 온 네팔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며 그와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으며 전체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함께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다. 이는 이주노동자와의 사랑을 낭만적으로 그려 낸 소설이라 할 수 있다.
19) 강신주(2004)는 벨기에 남성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서 사는 모습을 영문학박사 페미니스트의 좌충우돌 국제결혼기라면서 책 제목을 『나는 튀기가 좋다』로 출간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국제결혼을 이중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즉 신화할 가치가 있고 낭만화 할 가치가 있는 고대 역사속의 국제결혼은 신비화되고, 침략전쟁으로 인한 한국여성들의 강제적인 결혼과 그 귀향은 환향녀에서 화냥년이라는 언어로 비하되고 은폐된다. 또한 국가별 빈부격차에 의해 구분되는 선진국과 후진국이라는 잣대로 선진국 사람과 결혼하면 잘된 결혼이고 후진국 사람과 결혼하면 잘못된 결혼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전수현,2002)

이러한 인식은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국제결혼 가정들에 대한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이 아시아계 출신이며 이슬람 종교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주노동자들의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차별적 노동통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도덕적 우월성을 지니는데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타문화와의 문화적 차이를 차별적 기제로 이용하는 것은 국제결혼 안에서도 여전한 것이다(조성원, 2000).

1990년대 초 산업연수생 제도와 1992년 한중수교와 같은 국가정책변화와 더불어 증가된 아시아 국가들 출신의 이주 남성이나 이주여성과의 국제결혼과 관련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1990년대 이후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주로 중국 조선족 여성과의 결혼을 다룬 논문들이 많다.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이 결혼에 이르게 되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이들 가족의 생활실태 및 양국간의 문화적인 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가 이들의 결혼 및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조선족 여성의 결혼실태에 관한 연구>가 있다(강유진, 1999). 이 연구는 국제결혼 가족을 다룬 것이지만 국적이 다르면서도 같은 민족인 한국남성과 중국 여성간의 결혼생활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 최초의 연구라고 한다. 그 외에 조선족 여성들이 국내 유입이후 귀화를 통해 국내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려는 삶을 다룬 <조선족 귀화여성들에 관한 연구: 유입배경, 수용환경 그리고

부적응에 관한 고찰>이 있다(정현옥, 1999).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 여성의 배출요인을 중국과 한국과의 소득격차와 중국내 고용기회의 희소 그리고 국제화를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흡인요인으로는 국내의 3D업종 기피 현상과 이민자가 유입국에 먼저 가 있는 가족, 친족, 친구 등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인적 관계망을 의미하는 사회적 연결망을 들고 있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국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노동이동의 근접성과 이민자의 자국과 유입국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의 공유 정도를 의미하는 유사성을 들고 있다. 이들이 국내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의 수용환경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부적응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또 다른 연구는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으로 지구적 규모로 확장된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으로 발생한 빈곤과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기회를 찾아 독자적으로 이주하는 여성들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관련한 연구이다(홍기혜, 2000). 이 연구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가부장적 사회 체제의 의해, 남성과는 달리 성산업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업이나 가사노동에 종사하거나 국제결혼을 하는 등 성별화 된 방식으로 이주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 초점을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이주에 있어서 성별을 핵심적인 분석지점으로 삼은 연구이다.

주로 연구들이 조선족 여성과 결혼한 국제결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아시아 남성과 결혼한 연구로는 드문 연구인 <외국인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 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 형성 및 재생산>(조성원, 2000)이라는 논문과 <필리핀 노동자와 결혼한 한국 여성의 주변적 지위>라는 논문이 있다(전수현, 2002). 두 논문은 문화인류학 연구 논문이다. 두 논문의 공통점은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한 것이 어떻게 마이너리티 즉

주변적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이다. 앞의 조성원의 연구는 연구 초점을 처음부터 외국인노동자와 결혼한 저학력의 노동자 계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이들 국제결혼 가정을 불안정한 결혼 생활을 하는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그 자녀들이 혼혈인이기에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고 봄으로서, 한국사회가 가진 단일 민족 신화나 인종차별적인 혼혈인에 대한 문제를 일반화된 사회인식으로 보고 다시 이들을 마이너리티로 규정함으로써 다시 이주노동자를 주변적 존재로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수현의 연구 또한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한 여성들을 주변적 지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 연구는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여성간의 결혼이 지금까지 국제결혼의 주류를 이뤄왔던 가난한 국가의 여성이 좀 더 부유한 국가의 남성과 결혼하는 특정한 유형에서 벗어나 민족의 위계와 성별의 위계간의 상응이 깨어지고 전복되어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두 연구에서 드러나는 바로는 고졸 저학력의 여성 노동자가 이주노동자가 가진 상징자본(영어, 학력, 외모)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결혼을 통한 신분상승을 향한 기회로 활용한다는 맥락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여성의 주체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한국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는 일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실 이 논문들이 나온 시기가 국제결혼 가정과 관련한 법들이 개정 전이거나 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논문들이라, 한국여성들의 법적 지위가 열악하였다.

하지만 2006년 현재의 시점에서 법은 국적법이나 출입국법의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한국사회 또한 여성지위 또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혈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되고 있으며, 국정 교과서에서 단일민족신화를 빼려고 하는 교육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현재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은 많은 변

화를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2005년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한 건수는 43,121건으로 1990년 4,710건에 비해 9배 이상 증가되었다(표2 참조). 성별로 보자면 한국남성의 경우 1990년에는 619건이던 것이 2005년에는 3만 1,180으로 무려 50배가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는 1992년 한중수요 이후 2천 건에서 3천 건이던 것이 1995년에 들어서면서 1만 건 이상으로 급증한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이후 조금 감소하는 가 싶다가 2001년 이후가 되면 다시 1만 건을 넘어서게 된다. 그에 비하여 한국여성의 경우는 1990년 4,091건에서 2005년 11,941건으로 한국남성에 비해 갑작스런 증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1992년의 경우는 오히려 1천 건 정도가 줄어 1997년까지 3천 건 정도가 이루어졌다면, 1998년 이후 4천 건을 넘어서서 2001년 이후 5천 건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의 증가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결혼으로 사회적인 관심 속에서 92년 이후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많은 수가 결혼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여성의 경우는 그다지 커다란 수적 증가는 눈에 띄지 않았다.

2005년 한국인 성별에 따른 국적별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인 남성의 경우 중국여성과의 혼인이 20,635건(66%)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5,822건으로 2003년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많다(표3 참조). 한국여성의 경우는 2005년 중국이 5,042건(42%)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이 3,67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고,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표4참조). 따라서 국적별로 파악할 때 한국남성의 경우는 주로 아시아권의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다면, 한국여성의 경우는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유럽 남성과의 혼인 비율이 여전히 높으면서도 기타국도 많아 다양한 국가 출신의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5년 파키스탄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 결혼한 건수(219건)가 호주(102건)나 독일(85건)보다 많아

이는 국내의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적 근거는 2001년 64건에 불과하던 파키스탄인과의 국제결혼이 2005년 219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표4 참조).

<표2> 외국인과의 혼인

	시점 (년)	한국남자+ 외국여자(건)	한국여자+ 외국남자 (건)
계	1990	619	4,091
	1991	663	4,349
	1992	2,057	3,477
	1993	3,109	3,436
	1994	3,072	3,544
	1995	10,365	3,129
	1996	12,647	3,299
	1997	9,266	3,182
	1998	8,054	4,134
	1999	5,775	4,795
	2000	7,304	5,015
	2001	10,006	5,228
	2002	11,017	4,896
	2003	19,214	6,444
	2004	25,594	9,853
	2005	31,180	11,941

(자료 : 통계청, 2005)

<표3> 2001년~2005년 외국인 국적별 혼인

A. 한국인 남자 + 외국인 여자

	2005	2004	2003	2002	2001
계	31,180	25,594	19,214	11,017	10,006
일본	1,255	1,224	1,242	959	976
중국	20,635	18,527	13,373	7,041	7,001
미국	285	344	323	267	265
필리핀	997	964	944	850	510
베트남	5,822	2,462	1,403	476	134
태국	270	326	346	330	185
러시아	236	318	297	241	157
몽고	561	504	318	195	118
기타	1,119	925	968	658	660

(자료 : 통계청, 2005)

B. 한국인 여자 + 외국인 남자

	2005	2004	2003	2002	2001
계	11,941	9,853	6,444	4,896	5,228
일본	3,672	3,378	2,613	2,377	3,011
중국	5,042	3,621	1,199	272	222
미국	1,413	1,348	1,237	1,210	1,132
독일	85	110	93	84	97
캐나다	285	230	223	174	164
프랑스	76	83	78	80	58
호주	102	136	108	89	79
파키스탄	219	103	130	126	64
기타	1047	844	763	484	401

(자료 : 통계청, 2005)

이와 같은 국제결혼의 증가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법률들의 개정을 촉발해

왔는데, 국제결혼은 그 결혼의 특성상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라는 국적의 다름으로 인해 좀 더 많은 법률에 준거를 두어야 한다. 그와 관련된 법률로서 ‘국제사법 · 민법 · 호적법 · 출입국관리법 · 국적법’ 등이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과 관련된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의 체류자격인 C-3, D-8, F-1, F-2, F-5, 귀화와 이중국적에 대하여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4> 국제결혼 가정과 관련한 체류자격의 종류

비자의 종류	체 류 자 격
C-3	단기종합비자로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영리목적 제외)
D-8	기업투자 비자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 관리 또는 생산 · 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F-1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로서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국내체류를 허가한 자(재외 동포 F-4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외교(A-1)내지 협정(A-3)자격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내에 장기간 체류하여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F-2	가. 국민 또는 영주(F-5)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나. 난민 인정을 받은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상인 외국 법인이 외국인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하려는 자 중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 라. 영주(F-5) 자격을 상실한 자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를 고려하여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강제퇴거자는 제외), 마. 외교(A-1)내지 협정(A-3)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

	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F-5	가.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의 풍속이해 등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춘 자로서 거주(F-2)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미하 50만불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가로서 기업투자(D-8)자격으로 3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한 자, 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라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20세 미만의 자녀
간이귀화	대한민국의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이어야 하며,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귀화시험생략
이중국적	국제결혼 자녀들에 대하여 만 20세 이전까지 이중국적 허용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국제결혼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는 혼인만이 아니다. 국가와 국가가 연계되어 각 국가의 법률적 근거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혼인 절차 보다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그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으므로 파키스탄 이주 남성과 결혼한 케이스를 중심으로 이러한 법률적 부분들이 국제결혼한 가정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이 법률들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여성들의 행위주체성(agency)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여성주의로 여성의 주체성 읽기

여성주의는 성별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다른 사회적 모순과 성차별의 관계에 주목한다. 때문에 여성주의는 그 어느 정치학보다도 다른 사회적 차별에 매우 민감하며, 다양한 피억압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연대와 제휴의 정치이다. 여성이라는 범주, 여성 억압은 젠더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 사회적 불평등은 계급, 민족 등 어느 한 가지 사회적 요인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계급이든, 민족이든, 젠더 모순이든 모두 다른 사회 문제와 관련성 속에서 작동한다(정희진, 2005). 따라서 여성주의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통찰을 여러 각도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여성주체성에 대한 이론적 통찰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티나 찬터(Tina Chanter)는 여성주의가 서구 철학의 정전(canon)에 의해 정의된 것과 같은, 주체성에 대한 전통적 모델을 거부하는 핵심에 주체성에 대한 데카르트의 가정이 의문시되지 않을 경우 이르게 되는 난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판은 데카르트의 정신/육체의 이분법이 주체성과 객관성이라는 대립을 지시하고 이성 대 감정 혹은 감정 같은 일련의 구별들도 함께 지시함으로써, 모더니티의 인식론과 도덕론의 근간을 이루는 주체성과 객체성의 대립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노성숙 역, 2005).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데카르트적 주체성이 가정하고 있는 합리성, 단일성, 정합성 그리고 그 지배력에 대해 거리를 취하는데, 이는 하나의 이상적인 주체가 아닌 다중적인 주체들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자들의 복수성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혹은 다른 이들과 일치해서 행위 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의 주체 내에서나 주체들의 공동체 사이에서

때때로 말끔히 해결할 수 없는 상충되고 모순적인 요구들을 경험한다. 주체들은 항상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들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회피하는 정치적 권력에 희생될 수 있다(노성숙 역, 2005).

주체들이 필연적으로 완전히 부정되거나 억제될 수도 또는 통제될 수도 없거나 되어서도 안 되는 그러한 영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인식론적인 행위자(agent)로서 우리의 합리적 통제를 넘어서는 사회적인 차원들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독립적인 행위성(agency)에 한계들이 있다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부분이 주어진 제도적,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인 권력의 네트워크에서 우리의 정치적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에서, 또 항상 이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위치하고 있는 자아와 우리의 형성을 돕는 사회 사이에서 연출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개인들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노성숙 역, 2005).

이렇듯 포스트모던 철학의 사유가 데카르트의 이분법적이고 유아론적인 주체에 대한 비판과 해체를 감행함으로써 오늘날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재구성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는 바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적 주체성에 대한 비판이 주체 그 자체에 대한 해체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막 남성 중심적 주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된 여성주의 주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유용한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여성주의자들은 자아와 타자의 상호연관성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 중요성을 수용하면서도 행위자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자아와 타자의 관계성 속에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입법 장치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여성주의자들이 정체성의 정치학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주체성에 대한 해체적인 접근과 살아 있는 주체성(lived subjectivity) 혹은 행위성(agency)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킬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노성숙, 2005).

여성주의에서 주체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도 아니며, 집단적인 것도 아니다. 즉 개인적 주체와 집단적 주체로서 여성이 형성되는 방식과 그 형성된 주체가 저항의 정치성을 띠게 되는 것이 인식론적이고 역사적인 문제인 동시에 정치적 실천의 문제다. 여성과 여성들이 한 개인 혹은 집단으로 인식과 행동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나 배제되고 소외된 상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여성을 단순히 사회적 권력에 의해 착취되고 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해 내어 기존에 확립된 권력의 노선들을 전복시키고 새로이 협상할 수 있는 주체적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다(고갑희, 1999).

한국사회는 지금 다양한 주체들과 조응하고 있다. 이 다양한 주체들은 세계화라는 흐름을 타고 이동하는 자본과 인간의 이동으로 인해 유입되는 이 시대의 신 유목민이라 할 수 있는 인프라노마드²⁰⁾들인 이주노동자들, 결혼이 매개되어 건너온 결혼이민자들, 남과 북이라는 분단의 현실 속에서 남한으로 탈출하는 탈북인들, 한국이라는 영토를 떠나 그 후예로 살아 온 중국 러시아 교포들, 아프리카에서 국가적 위기들로 인해 온 난민들 등이다. 이러한 시대에 한국사회는 영토안의 국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지 않을 수

20) 자크 아탈리는 인류를 세가지로 분류한다. 첫 번째 부류는 비자발적 노마드 또는 ‘인프라노마드’로서 대물림에 의한 노마드(원시부족의 마지막 후손들)와 어쩔 수 없이 노마드가 된 이들(주거지가 없는 사람, 이주노동자, 정치 망명객, 경제 관련 추방자, 트럭운전수나 외판원과 같은 이동근로자)이 포함된다고 한다. 두 번째 부류는 정착민으로서 농민, 상인, 공무원, 엔지니어, 의사, 교사, 한 곳에 소속된 노동자, 장인, 기술자, 은퇴자, 어린이 등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부류는 자발적 노마드로서 이 또한 ‘하이퍼 노마드(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고위 간부, 연구원, 음악가, 통역사, 안무가, 연극배우, 연극 연출가 또는 영화감독, 짐 없는 여행자)’와 유희적 노마드(관광객, 운동선수, 게이머)로 나뉘는데, 유희적 노마드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한 때 포함될 수 있는 부류라고 말하고 있다. 참조는 그의 책 『호모노마드 유목하는 인간』(이효숙역, 2005) 웅진 지식하우스 를 보기 바란다.

없으며, 함께 살아가야 할 타자들과 공존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여성이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여성노동자, 결혼이민자 여성, 탈북여성, 교포여성, 난민여성 등이 땅에 거주하는 다양한 여성 주체에 대해 이야기 해야만 하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주체성을 논의 하는 과정에서 민족적,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차이만이 아니라 인종적 차이를 포함하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경제적 위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지는 계급적 차이와 더불어 남성 여성의 성별 위계에 따른 성적차이와 이주남성과 이주여성 그리고 한국남성과 이주남성 더불어 한국여성과 이주남성 또는 한국남성과 이주여성, 한국여성과 이주여성의 조합처럼 다양한 관계에서 드러나는 성과 젠더, 문화와 인종, 계급과 종교 등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이라는 영토 안에서 남과 북으로 인종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사회적 조건들로 인해 다중적인 주체들을 대면하게 된 이 시점에서 여성주의자로서 여성주체를 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주의자들이 제공하는 이론적 논의들이 이러한 다중적인 주체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이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지 브라이도티(Rosi Braidotti)는 이러한 다중적 주체성을 논의함에 있어서 '유목적 주체'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녀는 유목적 주체를 우리 시대 주체성에 적합한 이론으로서 형상화 하고자 한다면서, 이러한 형상화란 주체에 대한 남근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는 출구를 일깨워 주거나 표현하는 사유의 스타일이며, 대안적인 주체성을 정치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유목적 의식이라는 것은 비판적 사유를 위한 인식론적이고 정치적인 명령이라고 한다. 그녀는 유목민을 주체 일반, 특히 페미니

증적 주체에 대한 정황적이고(situated) 포스트모던하며 문화적으로 차별화된 이해 방식을 담아 낸 나름의 형상화라고 한다. 이러한 주체는 또한 그 위치(location)에 따라 포스트모던/산업적/식민적 주체로도 기술될 수 있다고 한다. 계급, 인종, 종족성, 젠더, 나이, 기타 차별화의 축들이 주체 구성에서 상호교차하고 상호작용하는 한, 유목민이라는 개념은 이러한 많은 것들이 동시 발생함을 지칭한다고 한다. 따라서 페미니즘적 여성 주체로서 말한다는 것은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젠더 혹은 성차라는 문제들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박미선 역, 2004).

그러면서 그녀는 여기서 말하는 “유목적 주체”란 이미지는 글자 뜻 그대로 유목적인 민족과 문화의 경험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정의하는 유목적 상태란 관습 집합의 전복이지 글자 뜻 그대로의 여행이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목적 이동이란 창조적인 종류의 생성이며, 있음직하지 않은 다른 만남들, 경험, 지식이 상호작용하게 끄 하는 뜻밖의 원천들을 허용해주는 수행적인 은유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가 말하는 유목적 주체란 남근이성중심적인 독단론의 위력으로부터 사유 행위를 해방시킬 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사유에 자유, 생생함, 아름다움을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다(박미선 역, 2004).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하는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가진 남성이며, 또한 이주자로 이 땅에 들어 온 현대적 유목민인 남성으로서,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종교 문화적 차이를 배태한 상태의 남성이라는 점에서 그들과 결합한 한국여성들에 대한 주체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 결합의 과정에서 무수히 부딪히는 제도적 문화적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을 함께 겪어야 했던 한국여성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그녀들이 처한 한국이라는 지역적 공간은 그 여성이 한국 여성이기에 경험해야하는 여성으로서의 정치적 경제적 위치

로서의 문제도 중첩되어 있다는 점에서 브라이도티의 유목적 주체는 이 논의를 이끌어감에 힘을 주는 이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목적 주체라는 개념만으로는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여성의 다중적 주체성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다. 단순히 다문화 다인종화 되는 현상으로서의 다중적 주체에 대한 논의를 뛰어 넘어 전지구적 자본화가 초래한 제3세계의 노동자들에 대한 신식민화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식민화란 후발(저개발) 자본주의 국가들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의 국제노동분업이 제3세계 국가들로 하여금 서구에 경제적으로 예속되게 만드는 신식민주의 장치를 말한다(태혜숙, 2003). 그러한 논의의 지점에서 한국이라는 지역이 제3세계이면서 한편 다른 이주자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착취의 대상이자 주체가 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그러한 노동자들과 결혼한 한국여성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차별과 억압 속에 놓여 있으며, 어떻게 저항하고 협상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탈식민적페미니즘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논의의 배경으로 제일 먼저 다룰 수밖에 없는 이론가는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Chakrarty Spivak)이다. 스피박은 여성억압의 특수성을 결정하는 성차별 이데올로기나 가부장제 사회관계들에 대한 기존 페미니즘적 탐구를 받아들여 이데올로기를 그녀의 페미니즘의 중심에 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가부장제 사회관계의 자본주의 체제와의 구체적인 관련양상을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해명하는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맑스주의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서구중심적인 설명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제국주의와 착취의 문제에 관심을 확대한다(태혜숙, 2001).

그리고 제3세계 출신 여성으로서 스피박은 여성들 사이의 계급과 인종의 차이들에 주목하지 않고 여성을 동질화하는 페미니즘은 새로운 문화적 제국주의 충동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래서 그녀

는 자신의 페미니즘에서 인종범주를 문제화하고자 한다. 그런 면에서 스피박은 페미니즘에서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탈식민주의 이론을 형성하고 유포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학계에서 세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탈식민주의 문화론이 맑스주의 경제결정론을 피하면서 경제작용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미국식 문화주의는 비판한다(태혜숙, 2001).

따라서 스피박은 이러한 측면에서 인간주체성의 다중성(multiplicity)을 치밀하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려고 한다. 그녀는 인간주체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는 요소들 중에서 어느 단일한 요소만을 택하기를 거부하고 인간주체를 복잡하게 상호 규정하는 양상을 성 · 계급 · 인종의 세 가지 주요 지배체계들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스피박은 주체성의 다중성에 관한 포스트모더니즘적 통찰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그러나 그녀는 ‘차이의 정치학’을 따르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이 다중의 억압체계들을 무분별하게 늘어놓거나, 여성억압이 이성애주의 이데올로기나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논의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이런 경향과는 분명한 거리를 둔다. 또한 주변적인 것 자체가 중심을 변혁할 수 있다고 보고 무조건 가치를 부여하는 일부 포스트 페미니스트들이나 제3세계 여성들의 입장이 중심의 가치에 은밀히 동조하는 결과를 빚는다고 보고,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새로이 설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즉, 주변부는 중심에 대해 바깥에서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중심에 들어가서 그 중심을 ‘주변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정치학을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다(태혜숙, 2001).

이러한 새로운 정치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린 새로운 주체 개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 새로운 주체란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며 인간의 자의식이 도달하는 궁극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체란 우리 생각만큼 확고하고 통합적이지 않고 복수적(plural)이고

곧 균열되고 바뀌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주체성의 이런 측면은 개인 현상이 아니라 집단 현상이며, 한 사회구성체의 문화지평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적 담론들과 주체가 서로 작용한 결과 생겨나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박이 추구하는 것은 확고한 여성주체성의 확립이 아니라, 현대의 복잡한 여성주체성에 대한 다층적인 이해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공간의 생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태혜숙, 2001).

특히 페미니스트로서 스피박은 하위주체(subaltern)²¹⁾의 젠더화(gendering) 과정을 중시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 하위주체의 삶과 그 삶에 대해 ‘말하기’나 문화적 재현에 결부된 문제들을 부각시킨다. 그녀는 몇 층으로 침묵되고 가려져 있는 소위 제3세계적 포지션에 처한 보통 여성, 즉 여성 하위주체의 삶에 대해 ‘말하기’와 거기에 지식인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말걸기’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지식인 여성이 하위주체 여성을 대표하여 묘사하려고 할 때, 지식인의 입장과 하위계층 사람들 사이의 괴리를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윤리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하위계층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그것을 담론과 문화영역에 제대로 끌어들이어야 하며, 하위주체들이 현장에서 자기의 소리를 직접 재현하는 움직임이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담론화되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태혜숙, 2004).

벨 후크스(Bell Hooks)는 ‘포스트모던 흑인성’이라는 주제하의 글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글쓰기와 대부분의 학문과 문화에서, 비판적인 흑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차이”와 “타자성”을 학계의 합법적 쟁점으로 간주하는 이론적 영역을 열어 나가는 포스트모던 담론의 방식

21) 원래는 그람시가 사용한 용어로 종속된 의식이나 비지식인 사회 그룹의 정체성을 이야기 하던 것이다. 그러나 용어의 개념은 탈식민이론가인 호미 바바나 스피박의 정의에서 발전하여 왔다. Sonya Andermahr, Terry Lovell, Carol Wolkowitz, A Concise Glossary of Feminist Theory, Arnold, 1997. 에서 용어 참조하였다.

을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더구나 60년대 일어난 흑인 인권 운동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음에도, 탈중심되고 주변화 된 흑인 주체들의 공격적이고 충족되지 못한 요구에 대한 포스트모던 상황이 오히려 이러한 인권운동을 억누르게 되자 포스트모더니즘과 흑인 경험 사이의 현실적 관련성을 부정하게 되었다고 본다. 흑인 인권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많은 저항이 무참히 진압되고 실종된 후에, 이들 목소리는 대부분 억압적인 상황에서 침묵을 강요받거나 아니면 발언권을 빼앗겼다고 본다. 따라서 흑인 해방 투쟁의 메시지를 전달할 새로운 길이 필요하였고, 인종주의와 다른 여러 종류의 지배의 정치학에 대해 이야기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강력하게 개념화된 급진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례는 전치되고(displaced), 주변화되고, 착취당하고, 억압받은 흑인 민중의 목소리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지영 역, 2001).

한 인간이 주체로서 목소리를 가진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 정체성 비판에 초점을 맞추는 양상은 얼핏 보아 식민화와 왜곡된 결과로 고통 받아 온 사람들이 담론과 실천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위협하고 닫아버리는 것 같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벨 훅스는 포스트모던 사상의 방향성을 비판한다고 해서, 미국 흑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길을 열어준 포스트모더니즘의 통찰력까지 간과해버려서는 안된다고 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에 의해 유발된 본질주의의 비판은 전통적 정체성 개념을 새로이 형성해나가야 하는 미국 흑인들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녀는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모두 너무나 오랫동안 편협하고 억압적인 흑인성의 개념에 매달려 왔다고 보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대중문화와 대중 의식 속에서 과잉 결정된 정태적인 정체성과 보편성의 개념에 도전하면서 본질주의 비판한다고 본다. 이것은 자아의 구성과 행동력(agency)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

한 본질주의 비판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삶의 조건인 다양한 흑인 정체성의 경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지영 역, 2001). 따라서 흑스가 제시하는 포스트모던 흑인성 특히 포스트모던 흑인 페미니스트 정체성은 인종차별주의와 억압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종적 성적 주체의 유동성과 분열성을 인정하는 것에 기초하며 편협한 문화적 국수주의에 근간을 둔 정체성이 아니라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주변적이면서 저항적 주체를 의미한다(구은숙 역, 2000).

이러한 흑스의 논의는 우리의 역사 특히 미군과 함께 해온 역사와 미국의 문화제국주의의 영향으로 술한 헐리우드 영화를 보고 자란 세대들과 관련된 논의다. 이 세대는 서구가 바라보는 인종적 편견에 물들어 있는 세대이기도 하며, 그 세대의 아이들이 흔하게 놀러대는 말 가운데 피부색이 가무잡잡한 아이를 호명하는 “아프리카 시킴둥이”는 이미 의식 가운데 흑인성에 대한 비하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왜 까만 것이 놀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 없이 회자되는 이러한 말들 속에 백인과 다른 흑인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체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피부색에 대한 인종차별적 의식은 일터에서 만나는 산업연수생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나타난다.

찬드라 모한티(Chandra Talpade Mohanty)는 그녀의 책 서문에서 페미니즘 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페미니즘 비전은 친여성적이며 친성적인(pro-sex) 세상에 대한 비전이다. 즉 여성과 남성이 안전히 그리고 충분히 건강하게 통합되는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며 함께 거주할 사람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세상이다.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세상이며 의무나 고역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 때문에 선택하는 세상이다. 자유롭게 상상

력이 충만한 정신이 탐구를 기본적 권리로 하는 세상이며 인간 행복의 물질 기반으로 경제적 안정, 환경의 지속, 인종간의 평등, 부의 재분배 등이 갖춰진 그런 세상이다. 끝으로 내 비전은 그 사람이 자리하는 경제 · 사회적 지점에 관계없이, 민주적이며 사회주의적인 실천과 제도들이 모든 공공대중을 위한 참여와 정책결정으로 제공되는 그런 세상이다(문현아 역, 2005).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함께 거주할 사람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세상은 많은 국제결혼 가정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비전이며, 특히 그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경험들 속에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맛보아야 했던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들에게는 함께 이루고 싶은 비전일 것이다.

모한티는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려는 전략에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페미니즘, 참여라는 민주적 원칙 그리고 합리성을 합당한자리에 돌려놓는 전략들이 포함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무수한 경계들의 최전선에서 그리고 수많은 각기 다른 공동체 속에서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체제에 맞서기 위한 조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지 혁명만을 위해 일하거나 혁명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급진적인 변혁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의 투쟁이나 과정뿐만 아니라 작은 규모의 투쟁이나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상속의 페미니즘,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반자본주의 실천들은 대규모의 조직화된 정치적 운동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문현아 역, 2005).

특히 그녀는 서구페미니즘에서 제3세계 여성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지위를 검토하기 위해 종교, 가족/친족구조, 법률체계, 노동의 성적 분화, 교육 그리고 정치적 저항과 같은 공통 영역을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각각의 텍스트가 일반화를 시도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본다. 이는 여성을 종교, 경

제, 가족, 법적 구조 속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집단으로 상정하고 맥락 없이 그리고 계급이나 민족을 불문하고 여성을 일관된 집단으로 간주하는 이런 문제의식은 세상을 궁극적으로 이항대립적인 용어로 구조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 반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가부장제는 언제나 필연적으로 남성지배적이며, 종교 · 법 · 경제 · 가족체계는 남성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전체 인구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며 지배와 착취의 관계도 전체 사람들의 측면에서 구성되어 버리고, 이분법적으로 상이한 남성과 여성이라는 상이한 범주나 집단으로 간주됨으로서 경험이나 인식 이해관계가 상이한 별개의 범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문현아 역, 2005).

이는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의 주체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주남성과 여성을 대립적으로 볼 수 없는 관계성과,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중첩적인 문제들이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적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법적이면서 사회적인 가부장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성들이 경합하고 협상하는 가를 보여 주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과정에서 무리한 일반화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 넘어 각각의 여성들이 가진 주체성을 제대로 읽어 가야 할 것이다.

III. 법적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타협

1.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 : 호주가 되다.

국제결혼 한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혼인신고가 마치는 순간 한 가계(家繼)의 호주(戶主)가 된다. 즉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아버지의 호적으로부터 분리됨과 동시에 일가창립을 하게 되어 호적의 주인으로 등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상대 배우자 남성은 호주인 한국여성 밑으로 편제가 된다. 한국의 고유한 제도인 호주제, 남성만이 호주가 되는 것이 상식인 호주제에서 여성호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남동생이 호주가 되어 가계의 대표성을 구현하는 시대에, 여성이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호주가 된다는 것은 상식과 어긋나는 일인 것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에서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유일한 문서로서 호적등본은 여성을 호주로 만들지 않고는 외국인인 남성 배우자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이는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비자를 줄 수도 없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호주가 된 여성들은 호주가 의미하는 가족의 대표성이나 권리를 남성호주와 동등하게 갖지 못한다. 1997년 12월 13일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의 상황은 여성호주로서 국제결혼 한 한국인 여성들의 지위가 결코 평등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광배희는 여성신문에 투고한 그녀의 칼럼에서 「호주제는 민법 및 호적법상 명백한 남녀차별일 뿐 아니라, 국제결혼 한 가정들과 관계된 섭외사범은 호주제에서 비롯된 아버지 남편 우선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남성은 혼인, 친자관계, 부부재산제, 이혼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외국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 본국

법인 외국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 여성차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혼 시 한국여성들에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으로 한국 법의 테두리 밖으로 내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²²⁾

90년대 초반 들어오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여성들과의 결혼이 증가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은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완전한 가부장제였다. 같은 국제결혼을 해도 외국인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호적에 올려지고, 바로 주민등록등본에 남편과 함께 등재되고 국가의 시민권자임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았었다.

하지만 외국인남성들은 한국인 여성 호주의 배우자는 되었지만 시민권자는 될 수 없음은 물론 체류자격조차 인정받기 힘들었다.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 파키스탄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던 국가 관계에 의해, 결혼한 파키스탄 남성들은 입국 시 받은 90일 단수비자로 체류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파키스탄 배우자들은 가까운 홍콩이나 방콕 등으로 출국을 했다가 재입국해서 체류기간을 늘려 나가는 실정이었다. 호주가 되었지만 남편을 위해 재입국시 남편임을 보증하는 것 외에는 외국인여성 배우자들에게 당연시되던 시민권을 부여해줄 수가 없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법제도가 가능했던 것은 ‘출가외인’이라는 오래된 관습이 일반인들 뿐 아니라 법조차도 당연시 해 온 결과였다고 본다. 더구나 자녀를 출산하였을 경우 그 자녀들은 외국인 배우자가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배우자의 본국에는 자녀로서 기록이 남지만, 한국에서는 호적등본에 등재 될 수 가 없었다. 즉 여성호주라는 지위는 자신의 자녀를 출생했음에도 자신의 가족으로 구성할 수 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법무부도 섭외사범은 그동안 국내 여성단체들이 대표적 여성차별법령

22) <http://root.or.kr/ho/gwak-b-h2.htm>

중 하나로 지목해 왔던 것이다. 한국여성이 외국남성과 결혼할 경우 남편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식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속한 국가의 법만 적용됐다. 당연히 이혼과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한 법적 소송에서도 불평등. 불이익이 많았다. 앞으로 국내법도 준거법으로 삼게 한다는 소식이다. 우리사회는 아직도 여러 부문에서 남녀차별이 심하다. 그 요인 중 하나가 뿌리 깊은 **부계혈통주의와 출가외인의 관념**. 이는 섭외사범에도 그대로 반영돼왔다고 하겠다.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 협약’이 발효한지도 20년째, 선진국 소리를 들으려면 여성차별 관련 제도와 관행도 부지런히 고쳐나가야 한다. 23)

이와 같이 국제결혼 한 여성호주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필요한 존재일 뿐, 자녀를 낳아도 호주로서 권리행사가 불가능했으며, 가족을 구성하고 살고 있음에도 주민등록등본 상에서 혼자인 존재였다. 또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편과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은 시민권자가 될 수 없었다. 더구나 자녀들은 출생지가 한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으로서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었다. 그로인해 한국에 거주하지만 아무런 법적 보호나 정책적 혜택도 받을 수 없었고, 특히 질병과 관련된 의료보험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남편은 불안정한 신분체류로 인해 취업도 불가능하였고, 사실상 불법취업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3개월에 한 번 꼴로 외국에 나가서 재입국해야 하는 현실은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가정들을 경제적 빈곤에서 헤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부분들이었다. 더구나 불법체류자인 이주남성과 동거라는 형태로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던 한국여성의 가정들은 자녀를 출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를 합법적 신분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사백에서 오백만원이나 하는 미등록체류 범칙금을 낼 수가 없어서 그

23) 「경향신문」(오피니언/인물)칼럼, 논단 2000년 6월 7일

대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럴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자녀를 남편의 나라에도 한국에도 출생신고하지 못하여 무국적자가 되기도 하였고, 공여지책으로 미혼모처럼 혼인신고 없이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국제결혼 가정들은 공동체를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결성된 ‘코시안의 집’과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에서 결성된 ‘네코모임’, 그 외에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결성한 ‘지구촌 사랑 나눔터’도 꽤 알려진 모임이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투쟁할 뿐 아니라,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들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NGO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국제결혼 가정들을 위해 만든 모임이었다. 그러나 단체들이 모임을 결성했다고 해서 그 모임들이 자동적으로 활동을 유지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었다. 각각의 참여자들의 활발한 활동과 참여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으며,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자각하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는 이주남성들을 대신하여 한국여성들은 의식을 바꾸어 나가기 시작했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아래의 온라인에 올린 글은 2001년 11월에 H회원이 TV출연한 것을 보고 난 Y회원의 후기이다.

예전엔 국제결혼하기가 더 힘이 들었나봐요. 그나마 H씨 같은 분들이 이렇게 대중 앞에 나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같은 이웃도 있다는 것을 알리므로 해서 생각에 전환도 되고 잘못된 편견도 점점 나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H씨를 보고 대중 앞에 나선다는 것도 싫지 않은 일일 것이기에 많은 커플들에 말을 대변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마웠어요. TV 잘 보았구요. 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이 함께하길 빌게요. (Y회원, 2001)

H회원의 TV출연은 이주노동자와 이루어진 국제결혼에 대한 방송이었다. 이에 대하여 Y회원은 많은 커플들의 말을 대변해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

고 있다. 이는 하위주체로서의 여성이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냄으로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대중을 향하여 과연 현사회의 인식이 옳은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TV출연이라는 행위는 한국사회를 향해 문제를 환기 시키면서 현실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역설할 수 있는 통로 찾기로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12월에 있었던 네코모임의 ‘하루 행동’들은 한국여성들이 남편의 거주권과 노동권, 자녀의 시민권을 위해 장외에서 이루어진 투쟁으로, 이는 자신들의 주변적 지위를 바꾸고자 하는 주체적 행위들로 볼 수 있다. 또한 지구촌사랑나눔터의 백미숙이라는 여성은 국적법 위헌제청 소송을 통해 법적인 권력에 도전하였다.²⁴⁾ 자신의 부당한 차별적 상황에 대해서 당당히 맞선 그녀는 법적 소송으로 국적법을 개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더구나 백미숙이 소속되었던 지구촌사랑나눔터라는 모임은 현재 파키스탄커플모임의 회원들의 전신과도 같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지구촌 사랑 나눔터’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인권보호캠페인이나 거리집회, 편지쓰기 운동 등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알려내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힘을 한데로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그간 지 · 사 · 나는 외롭게 싸워 오느라 힘겨웠습니다. 기관에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방송국에도 수차례의 편지도 보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뜻 우리를 믿고 지원해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촌 사랑 나눔터가 홀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24)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 이 여성은 두 딸을 가진 여성으로서, 결혼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남편 모함마드 나딘 이크발이 1995년 1월 강제로 본국 송환되고, 아이를 혼자 출산하게 되자 이래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목사의 소개로 알게 된 인권 변호사 송광운씨를 만나서 그의 도움으로 국적법 위헌제청이라는 소송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결혼 한 여성과 그 자녀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파키스탄으로 가서 살려고 했지만 그래서는 한국인 엄마로서 떳떳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의료보험 등 경제적 문제보다는 한국인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1997년 12월 29일(생활/여성)기획, 연재 22면

전국 각지에 퍼져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주기로 하였습니다.²⁵⁾

위와 같이 여성들은 필요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하였고,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자 하였으며, 언론매체인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러한 행위는 여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이 곧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고, 개인적 주체이자 집단적 주체로서의 여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주변적 존재이자 소외된 상태로 만드는 법을 바꾸어내려는 저항적 주체였을 뿐 아니라, 노동자를 돕기 위해 결성된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한 정치적 실천을 이루고자 한 행위주체들(Agency)이었다.

그때 비자를 연장해달라, 취업을 하게 해달라 하는 시위를 명동에서 피켓 들고 침묵시위를 했었고 ... 여러 명이 불법체류로 있다가 혼인신고 되는 줄 모르고 강제 출국당하시고, 아기 있는 집들, 그러다 보니까 비자를 안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들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침묵시위하고, 유네스코에서 인터뷰 같은 거 하고 ... 발표회 같은 것도 가졌었고 ... 시위엔 한 30명 정도 참가했을 거예요. 지금은 개개의 문제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책자도 만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이야기들도 하고 막 그랬죠.(류진희, 35세)

25) 지구촌사랑나눔터 회지 1999년 7월 1일자 공지사항이다. 지구촌사랑나눔터는 단지 모임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와 정보 등을 이러한 지면을 통해 주고 받았으며, 자신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하는 글들이 실렸다.

따라서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은 단지 사회적 권력에 의해 착취되고 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기존에 확립된 권력의 노선을 바꾸고자 하였으며, 새로이 만들고자하는 행위주체자(Agency)로 살아 온 것이다. 이렇듯 NGO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든, 개별적인 행위를 통해서든 호주라는 가부장제적인 명칭이자 법적 지위는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로 인해 여성호주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연출해 내었을 뿐 아니라, 결국 성차별적이며 부계혈통적인 국적법을 개정하도록 하여 양계혈통의 국적법으로 바꾸어 내었다.

이로써 여성은 호주가 되었고, 남편은 그 밑으로 편제되면서, 그 자녀들마저 함께 편제되는 현실이 되어 마치 모계제의 형식을 띄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의 호적등본은 문서상으로 보았을 때 모계제의 사회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이는 호적등본에 등재된 남편은 여성호주에게 소속되는 가족으로 편제될 뿐 아니라, 그 자녀들은 성(姓)을 호주인 여성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자적의미를 재해석하자면 여자(女)가 낳았으니(生) 그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부계인 아버지를 좇아 그 성을 이어왔다. 그에 대한 반발로 여성주의자들은 부모 성을 함께 붙여 쓰는 운동들을 해왔다. 하지만 그러한 양성쓰기 운동은 대외용으로 양성평등을 주장하기 위한 홍보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법적으로 쓸 수는 없다. 물론 호주제 폐지가 멀지 않았고, 1인 호적제가 되고, 성도 선택이 가능한 날이 오면 이러한 운동도 역사에나 남을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 시행이전 성이란 아버지의 성을 자녀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국제결혼 한 여성의 성이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은 전복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상 호주제 폐지 이후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성의 선택을 놓고 여성의 성을 좇아 자녀에게 성을 부여할 것인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이전에 이러한 모습은 성(姓)의 대물림이

가부장성을 유지하는 표상이었으며, 그것이 간단히 법 개정에 의해 여성의 성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존속의 이유가 불분명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새 생명을 출산 한 주체이면서도, 자신의 재생산권이 간단히 무시되는 그 성(姓)의 대물림은 여성의 주체성을 부인하는 가부장제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가부장제가 여성의 주체성을 부인해 온 과정들과 그 모순들을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하고 그러한 법적인 가부장성에 대하여 국제결혼 한 한국 여성들이 변화하도록 도전하는 과정들에서 기존 권력과 협상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2. 남편의 비자(VISA) : 가부장제적 성차별과의 싸움

한국과 파키스탄은 비자면제 협정으로 인해 파키스탄 남성들은 90일간의 체류가 허용되었고, 굳이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터라 3개월에 한번 씩 가까운 외국으로 출국 했다가 재입국을 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방법이었는데, 재입국시 출입국 직원의 자유재량에 따라 얼마든지 입국이 불허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매번 3개월마다 치러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과 들어올 때마다 느껴야 하는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 홍콩이나 방콕대사관에서 아예 비자를 받아 들고 오는 경우도 많았다. 이때 주어지는 비자는 C-3이라는 단수 비자였다. 이론적 배경 <표4>에서 설명했듯이 체류자격의 요건 중 친지방문이라는 자격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비자로는 한국에서 거주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취업도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설사 취업을 한다 해도 불법취업으로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개월에 한번 씩 해외에

나갔다 올 때마다 드는 사 오십 만원 하는 비용들은 저임금의 이주노동자로서 사는 한 남성이 부담하기에도 큰돈인데, 더구나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경우에는 더욱더 부담이 되는 비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비용들은 경제적 빈곤을 부추기는 원인이었을 뿐 아니라, 그 비용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가정들은 아예 혼인신고를 포기한 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장기간 머무는 방법을 택하여 살 수 밖에 없었다.

어 우린 홍콩으로 많이 갔다 왔지. 아니 방콕으로도 많이 갔는가? 아 그때 대사관들도 어디는 비자를 잘 주는데, 어디는 어렵고 그랬어. 그래서 아마 방콕으로 갔다 오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리고 아저씨는 영국도 갔다 오고 그랬지. 가족이 거가 있으니까. 카라치도 갔다 오고. 그 때 거시기 비자가 C-3이었어. 돈도 많이 들었어. 쓸데없는 돈이 나가니까 힘들었지. 그보다도 스트레스가 많았지. 출입국에 가면...(정미경, 40세)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결혼해서 여기 와서 정주하면서 살고자 하는건데... 사실은 우리나라 남자들도 남자 혼자서 벌어먹고 살기 힘든 판에, 거꾸로 똑같은 능력 가져도 크게 대우 못 받고 사는 데, 여자 혼자 벌어서 식구가 다 먹고 산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나갔다 오면, 한명이지만 비행기 값, 오십 만원씩 칠십 만원씩 깨지니까.(류진희, 35세)

이러한 체류자격은 외국인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 할 경우와 달랐다. 외국인여성들은 한국인남성과 결혼함과 동시에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는 자동국적 취득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차별적 제도는 한국여성들의 반발과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자 1997년에 있었던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주

어졌던 시민권으로서의 국적취득 조항을 삭제하고,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한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남녀로 바꾼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로 2년 이상을 살면 자동적으로 2년 후 국적취득 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더러, 귀화를 위해 귀화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무엇보다도 그 전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인 비자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게는 F-1을 쉽게 주면서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에게는 부여하기를 주저하는 출입국관리법이 존속함으로 인해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채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한국인끼리의 결혼이 여성이 남성의 가계로 편입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만큼 외국인 여성이라도 결혼을 통해 한국인 남성의 가계에 편입됨으로서 그 가족으로서 살도록 비자가 쉽게 주어진 반면, 이주남성은 그 F-1 비자를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했다. 부인이 아파서 도저히 돌봐 줄 사람이 없다거나, 출산이 임박했다거나 하는 사유들 말이다. 그러나 그 비자도 외국인여성에게는 간단히 2년이 부여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사유를 들어 신청을 해도 이주남성배우자에게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 정도를 주었다. 그리고 필요시 다시 기간연장을 해야 했다.

응 많이 좀 부당하다. 그렇게 해서 많이들 모였죠. 국내에서 연장조차 안 되니까, F-1자체가 3개월 주면서 홍콩까지 나갔다 와야 되구, 연장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연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국내에서 연장을 해달라고...그리고 나서 3개월씩 연장해주면서 각서 같은 것을 많이 받았거든요. 3개월을 연장 해주면서 다음부터는 꼭 나가서 비자를 받겠다. 안 그럴 시에는 뭐 강제출국 조치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각서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각서까지 쓰시면서 연장 받으신 사람도 있었어요. 애기들 출산 같은 것 앞두고 그랬는데도 연장 안 된다고 그런 분도 많고 참 심했어요.(류진희, 35세)

이러한 체류자격 부여는 한국여성이 위치한 성별 위계에서 남성보다 하위에 있음을 의미했고, 이주남성은 이주여성보다도 하위에 있음을 의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자라도 받으면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했기 때문에 받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이 비자 또한 취업이 불허되는 비자였기에 생계를 위해 취업을 해야만 하는 남편들은 강제출국의 위험을 안고 불법취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의 경제구조에서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상정하고 취업에서 여성에게 차별적 관행을 일삼아 온 이 사회가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 남성의 노동권을 부인함으로써 기본적인 생계유지조차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제결혼을 하는 이주노동자 남성을 사회적으로 배제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유지해 온 제도적 성차별이면서 동시에 인종차별적이며 계급차별인 것이다. 이는 제도적 성차별에 대한 저항을 불러왔으며,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 문제를 가시화시킴으로써 2000년 출입국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F-2-1이라는 비자를 얻어내었다.

그래서 F-1 비자가 가능해졌죠. 3개월씩 연장하다가 2000년도 지나면서 1년으로 가능해졌죠. 취업이 안 되는 거로요. 그래서 또 취업을 하게 해 달라,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자 혼자 벌어서 먹고 산다는 게 힘이 드니까. 불법적으로 취업을 해서 산다고 해도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해달라, 그렇다고 다 D-8이라는 비자를 가질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기술 전문직이라고 해서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스카웃되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으나 안 되었었죠. 그러다가 인권 단체들과 함께 F-2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였지요. (류진희, 35세)

그녀의 이야기처럼 한국여성들은 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고, 또한 인권단체와 연대해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도움을 받을 만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국제결혼 가정의 외국인 배우자들은 결혼과 함께 F-2비자를 받아서 노동권과 거주권을 보장 받게 되었다. 이 비자는 체류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또는 2년까지 되는 비자였으며, 취업도 가능한 비자여서 한국인 여성의 배우자인 이주노동자 남성에게는 노동권을 그 가족에게는 생존권을 보장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제도의 개선은 이주노동자 배우자가 착취당하는 인종차별적인 사회적 배제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으며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경제 계급적 차별을 개선하는 효과 또한 가져 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는 국제결혼 한 여성들이 단순히 성차별의 의해서만 억압 받는 주체가 아니라 인종과 계급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 다중적 주체(Plural)임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F-1비자는 사업행위를 할 수 없는 즉 개인사업자가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살아 갈 수는 있으나, 스스로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연다든지, 식당을 차리는 행위는 금지된 법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한국인 여성 배우자의 이름이나 그 가족의 이름으로 영업행위를 하게 된다. 즉 부인이 이름만 대표자가 되고 남편은 피고용인이 되는 형식을 통해 실질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는 국제결혼가정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방법들이다.

사업자 내고 한거는, 우리 신랑 이름으로 낸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2002년도, 그전에는 다른 분하고 같이, 한국분하고 같이 했고 그 때는 그게 굳이

필요 없었어요. 우리 신랑이 많이 바랬어요. 사무실 내면서 사무 단지에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안 해 줄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일단 우리 신랑 명의로 올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이름으로 했죠.(류진희, 35세)

이와 같이 한국여성들은 이주노동자 남성과 결혼을 통해 국가의 가부장적 법체계에서 성차별과 인종차별 그리고 계급차별을 동시에 경험한다. 그러한 경험은 남편의 체류사실과 관련된 비자를 발급받는 일에서부터 국적부여에 따른 귀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차별들에 대해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다. 비자연장을 위해서라면 각서를 써주고라도 받아 내려고 출입국 직원과 협상을 했으며, 생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 쓰고 불법체류로 취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 여성 자신의 명의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인적 노력만으로는 합법적인 체류가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들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가시화 시켜내고 결국 법개정을 이루어 낸다. 그러한 여성들의 행위주체성(agency)은 국제결혼 가정의 거주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이었으며, 성차별적이고 계급차별적이면서 인종차별적이기까지 한 한국의 가부장적 법체계를 바꾸어내기 위한 다중적 주체(Plural subjectivity)로서의 저항들이었다.

3. 귀화 : 가부장제로의 재편인가 타협인가?

귀화란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외국인이 한국 국내법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 자신의 출신국의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한국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인 한국여성의 호적에는 올라

갔지만, 체류하기 위한 법적 지위는 비자(visa)임을 밝힌 바 있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자(visa)가지고 체류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취업이 허용됨으로 인해 노동권의 보장을 받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됨으로서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분명 이 비자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편의 완전한 경제활동 보장이라든지, 체류의 안정성에서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란 언제든지 강제출국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신분적 불안함이 남아 있기 때문이며, 사실상 한시적 거주를 연장해 준다는 의미에서 여전히 시민권을 누릴 수 없는 국외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자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소를 가야 하는 번거로움은 단지 행정적 절차의 번거로움이 아니라 출입국직원들과 대면하면서 받아야 심리적 부담이 더 컸다고 봐야 할 것이다. 공무원의 태도가 불친절한 것에 대한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신의 남편이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는 절차와 질문들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의 모욕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갔을 때가 생각납니다. 앞서 들어가 로비에서 기웃대던 신랑에게 던진 “넌 뭐야! 뭘데 서성거리?” 안내인의 말에 뚜껑 열려 아주 우아하게 대응하느라 인내했던... 결국 어떤 나이든 사람이 나와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고해서... 결국 죄송하단 말에...담당자에게 서류 내밀고 몇 분도 채 안 되어 일주일 후 등록증 찾으러 오라고... (L회원, 2002)

F-2비자로 갱신하기 위해 사무실도 조퇴까지 하면서 갔는데 ... 그 직원말이 왜 쓸데없이 이렇게 까지 하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5년 뒤에 F-5로 바뀌서 살려고 한다니깐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고 F-5 비자 신청 후 조사에서 받기 까지 최소 1년 정도가 소요 되며 ... 어찌구 저찌구 하더라구요. 그냥 주면서 “행

복하게 살고 있으세요?” 라고 물으면 헛바닥에 가시가 돋나 봐요. 많은 일본인들도 있는데 그런 말은 우리 부부에게만 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시리 ... 후진국 사람은 사람으로 안보이고 좀 서로가 잘살려고 하면 배가 아프고 몸에 종기가 나나보당! 하여튼 아직도 인종 차별하는 것은 여전한 우리의 현실(k회원, 2002)

남편과 함께 비자연장을 위해 다녀 온 L회원과 K회원은 출입국직원들의 질문의 태도나 대답이 차별적이라고 인식한다. 이러한 차별적 태도는 인종 차별에서 왔을 뿐 아니라 남편이 제3세계인 경제적 저개발 국가에서 온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러하다 보니 남편들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들도 출입국에 가는 것과 그 담당 직원을 만나는 일이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다.

파키스탄에서 결혼을 한 후 한국에 와서 우리가 할랄 푸드를 시작했는데, 정말 장사가 잘 되었어요. 매번 3개월마다 비자 연장도 할 겸 필요한 물건도 살 겸 홍콩으로 갔다 왔는데, 출입국을 통과할 때 마다 마치 죄인취급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힘들던지... 그가 파키스탄 사람이다 보니까 무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면서 야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너희들 이쪽 이쪽으로 하는데,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윤소라, 35세)

윤소라는 남편 비자를 위해 3개월마다 홍콩으로 나갔다 와야 했던 상황에서, 매번 출입국을 통과할 때 마다 국가 공무원의 인종차별적 처우를 감당해야 했다. 그러한 상황들은 심리적 부담감과 분노를 느끼게 하였다.

그 후 1년 반 안에 일에 진행된 사항들이 복잡한 사항이 많았었고, 법무부에 가서 증언을 해야 했고, 출입국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었거든요. 그 과정에

서 모욕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내가 결정적으로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부분은 법무부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할 때 너네 부모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니가 옛날에 무슨 일을 했고, 가족부터해서 속속들이 ... 내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거나 추궁을 하면 되는 건데, 니네 부모님이 옛날에 어떻게 아팠고, 그래서 니가 어떻게 했고.... 출입국 직원들은 나의 사생활을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나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것까지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나쁜 놈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꺼내서 완전히 나쁜 놈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니가 결혼 할 수 있으면 해라” 내가 알고 있는 사건 외에도 또 다른 사건을... 외화 있잖아요.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죄명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아니다. “너는 몰랐냐? 당신 남편은 이렇게 까지 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횡포가 어떤 건 줄을 몰랐고... 내가 알고 있는 사건만으로도 복잡했는데, 다른 사건까지 이야기 하면서 협박할 때는 그때 억울함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었죠. (박재경, 32세)

남편이 비자 기한이 다 되어 혼인신고를 하러 갔던 박재경은 남편이 강제출국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남편이 어떠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였다. 그 후 조사과정에서 출입국 직원들로부터 모욕과 인격비하 발언을 들어야 했다. 국가권력의 횡포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합법적인 투자비자(D-8)을 가지고 있던 남편을 둔 여성들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이틀 전에 인도에서 바이어가 들어왔답니다. 이분이 외국여행은 처음이라 인도에서 비자 받을 때부터 쉽게 주질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 저희도 처음이라 내심 걱정을 했는데...아니나 다를까 도착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는데도 나오질 안 오시더라고요. 울 신랑 공항 픽업 갔고 전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드디어 출입국에서 전화가 왔네요. 확실히 저희가 초청한 바이어인지 물어보네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를 못한다고 어떻게 와서 비즈니스를 하냐고 묻더라고요. 울 신랑이 인도사람이니 그런 걱정 하지마시라고 했죠. 질문을 어찌나 많이 하던지요. 어떻게 알게 되었나? 이름부터 회사명 생년월일 기타 등등.. 그것도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나중엔 목소리 걸죽하니 직책이 높은 사람 인냥 전화가 왔더라고요. 울 신랑 여권부터 전부다 조사하고 사업자 등록증 조사해서 수출 내역 있는지 여부 조사에... 장장 2시간씩이나 울 착한 바이어 그곳에서 죄인인냥 있었을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나서 제가 한마디 했지요. 울 회사 비록 규모는 작지만 명예를 걸고 확실히 보증하겠으니 입국 허락해 달라고 필요한 보증, 각서 다 줄 테니 말만 하라고, 그리고 제발이지 울 바이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부탁했죠. 조금 있자니 입국 허락하겠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Y회원, 2002)

정말 싸가지 없는 출입국생각하면 정말 등골이 오싹 합니다. 우리도 바이어 입국문제로 거의 싸우다 십이 한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출입 송장이 있어서 입국이 되었는데 참 이해안가는 출입국 인간들입니다. 많은 돈 들여서 외국인투자 법인사업자 내줬으면 사업을 하게 만들어줘야지 비이어 초청 해놓고 개망신 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나 하게하고 그나마 기존거래 내역이 있는 바이어나 가능하지.... 새로운 바이어들은 샘플을 봐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욱 나옵니다.(P회원, 2002)

그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함께 했던 한국여성들은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 데, 이는 F-5와 같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과 귀화를 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D-8이나 F-2 비자로 5년 이상 거주해야만 되는데, 귀화는 2년 이상만 거주한 사실이 증명되면 그 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보다는 쉬운 귀화라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엔 귀화가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있

다. 국제결혼 한 가정들이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적으로 문서화된 서류로서 호적은, 자녀의 등재를 통해 그 자녀는 이후 한국사회가 제공하는 정책적 서비스들을 지원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계의 국적과 모계의 국적을 둘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국적이 허용된다. 한국인 여성을 어머니로 둔 자녀들은 국민이 됨으로서 시민권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국적법의 개정 전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 남성들은 귀화라는 절차를 거치기 전까지 비자라는 체류자격 부여에 따라 거주할 수 있었다. 이것은 여전히 시민권으로부터 배제된 채 한시적 거주만이 허용된다는 의미였다.

참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월드컵 16강 진출의 보상이라고요. 히딩크에게 명예국적을 운운하는 법무부... 히딩크에게 명예국적을 주는 것에 딴지 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헌데 가슴한부분이 허전하네요. 이방인들과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에게겐 그렇게 모질게 굴면서 거리낌 없이 법적근거 운운하면서 소리 내는 법무부...주위에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마음 아픈 사연들과 이방인을 남편으로 두고 나니 참 아쉽게 다가오는 "명예국적" 참...나...제출서류 꼼꼼히 챙기고 원하는 대로 준비해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헤꼬지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명예국적을 운운하니 한심 해서리... 전 방송에서 나오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케 들리던지... 이 나라 국민의 배우자는 비자를 받을 권리마저도 심사의 대상으로, 출입국을 드나들면서도 마음 조리며 기다려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법적근거... 아주 명확한데도 말이죠.(L회원, 2002)

2002년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 때 히딩크에게 국적을 주자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자 파키스탄 커플모임의 회원들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올려놓는다. L회원의 말처럼 국가에 기여도가 있거나 투자라는 방식을 의화를 유입한 금액이 클수록 비자를 받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자본이 없는

이주노동자 출신의 외국인 남성 배우자에게는 국적은커녕 한시적 체류자격마저도 심사대상이 됨으로서 그 대상에서 제외 될 소지가 있는 불안한 것이다. 이는 국제결혼 한 가정들을 주변적지위로 만드는 것이었다.

국민의 배우자면 될 합니까? 나라에 기여한 바도 별로 없고 처음부터 돈 없고 초라한 노동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와 뗏뗏하지도 못한 불법체류의 형식으로 거주를 하면서 나라의 골칫덩이 노릇을 해왔고 (아마 정부가 보기에) 운 좋게 한국여자 만나 결혼해 자력이 아닌 그 한국여자의 덕으로 겨우 불법의 어두운 딱지때고 또 그 한국여자의 배우자란 명분으로 국적 달라는 거니 정부가 쉽게 줄 리 만무하지요(주면 좋겠지만) 한국여자와의 아무 연고가 없어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커다란 공로를 세운 히딩크에게 국적을 주려고 한다는 건 전 서운함도 불만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정부래도 히딩크가 원한다면 바로 내주겠습니다. 그런 명분을 배제해낼 어떤 다른 명분을 못 찾겠습니다. 내 남편이 히딩크처럼 그만한 기여를 했다면 똑같이 그런 대접을 받을 테고, 히딩크가 내 남편처럼 불법체류하다 그냥 그냥한 일로 달라고 한다면 역시 눈총 받겠지요. 그 노동자의 아내로 그가 지닌 약소국의 어두움까지도 모두 함께 껴안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고달픈 애환이겠지요. 우리가 선택한 "사랑"이 주는 슬프고 고단한 긴 그림자로요.(다른 K회원의 답글, 2002)

K회원은 히딩크를 월드컵의 공신으로 인정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월드컵이라는 국가적 스포츠행사에 애국심을 불러내어 단결이라는 의미에 복종케 하는 축제가 또 다른 한편의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스스로 느낀다. 하지만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에 의해 이주노동자로 들어 온 자신의 배우자를 초라함으로 표현하거나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에 의해 정부에 의해 대접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

하고 있다.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껴안아 가야하는 고단함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내국인이 꺼려하는 3D업종에 몰려있죠. 한국경제의 일부분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 왜 히딩크의 공적에 못 미칠까요. 불법체류가 어찌 그들만의 잘못인가요? 우리의 출입국관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 또한 그들을 양산한 결과입니다. 불법체류 10년 이신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말뿐이라고... 이번 자진신고도 매년 되풀이되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래서 자신은 신고 않겠다고 했죠. 히딩크의 명예국적도 그의 노고가 있기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자진신고기간 중 출입국관리국의 권유로 벌금을 내고 생이별을 한분이 있습니다. 1년 후면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헌데 아직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아직 입국규제의 기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3년이 되어가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할 뿐이죠. 전 우리의 남편들도 제대로 대접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삶을 영위하길 바랄뿐입니다.(L회원의 답글, 2002)

그러나 L회원은 히딩크의 공적과 마찬가지로 국제결혼 한 이주남성 배우자들의 공적 또한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현 제도는 분명히 차별적인 제도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법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도 그 책임은 이주노동자가 지게 함으로서 국제결혼 한 가정을 생이별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히딩크 개인의 가치적이고 두드러진 성과에 비해선 우리 남편들의 국가경제 기여도에 있어선 아마도 상당히 크게 논란이 많을 거구요. 이번에 히딩크의 명예 국적 때문에 나온 얘기지만, 사실 월드컵 분위기에 기대어 볼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국민의 배우자로서 국적취득을 정

정당당하게 요구하려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아내의 국적취득이 상당히 용이한데 반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은 그에 비해 국적취득이 어려운 점을 헌법 11조의 평등권 위반으로 헌법소원을 제기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훨씬 근본적이고 모양새도 낫지 않을까... 행정기관의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로... 그런데 이 헌법소원이란 게 말처럼 쉽고 간단치가 않아서... 시간도 무척 많이 걸리고 소원을 제기한 당사자는 신경도 어마하게 쓰이죠. 설사 원하던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구체적사건에 적용되기까지는 또 하 세월... 어쩌면 그런 불평등한 집행을 가능케 했던 법률은 아니고 기관의 규칙이나 내규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국적법시행령에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별 어렵지 않은 취득방법이 나와 있지요. 국적 받으면 백번 좋지요. 그런데 그 국적에 그렇게 연연해하는 우리자신의 모습이 어떤 땐 더 안쓰러워요. (K회원의 답글, 2002)

K회원은 L회원의 답글에 대하여 여전히 히딩크의 공적에 대한 평가를 정당하다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의 문제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성차별적인 법제도에 대해 헌법소원과 법리적 투쟁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한다. 하지만 K회원은 국제결혼 한 여성들이 국적에 연연해한다고 안쓰럽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비자로서 신분적 안정을 취할 수 없었던 국제결혼 가정들로서는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간단히 연연해하는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히딩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게 대해서 언제든지 예외조치를 통해 국적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으나, 사실상 국가 경제 발전의 밑바닥에서 노동자로 살아 온 제3세계 남성을 차별하고, 한국인 여성과 결혼 했음에도 국적은커녕, 비자부여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제계급과 인종 그리고 성별에 따른 차별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경험들을 통해 여성들은 스스로 의식화 되어 가기도하였고, 법적 투쟁의 방향성을 모색하기도 하며,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주체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실천으로 이끌어내는 것에 대한 주저와 갈등을 경험하는 주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별적인 국적취득법이 개정되자, 비자라는 체류자격만으로 거주할 경우에 느끼는 신분적 불안함과 출입국직원들과의 불편한 대면을 해소하기 위해 귀화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남편들이 2년 이상의 체류기간을 채우고, 간이 귀화를 통해 귀화시험 없이 면접만으로 귀화를 하게 되자 하나둘 귀화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자 한국여성들은 새로운 호적으로 편입하게 된다. 즉 남편의 귀화 전에는 여성 자신이 호주가 되어 자신의 호적에 편재되었던 가족들이 남편이 귀화하게 되자 다시 남편이 호주가 되고 자신과 아이들이 남편에게 편재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남편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되자 한국의 가부장제적 호적법에 따라 바뀌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여성들은 자신의 호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히 다시 가부장제적 법제도 안으로 재 편입 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귀화를 통해서 창씨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가정들은 엄마의 성을 좇아 살아 온 관계로 남편들은 아내의 성을 좇아 개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윤아무개, 정아무개,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등 말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이들이 이미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엄마의 성으로 생활해왔는데 다시 다른 성으로 바꾸어서 부름으로 인해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함이었고, 또한 남편들은 그다지 한국인의 성에 대한 가부장적 사고가 자리 잡지 못한 지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창씨개명은 여성의 성으로 하는 가정들이 많았다.

외국인의 귀화행렬은 시공을 넘어 최근 들어 급증,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귀화자도 증가했다. 특히 외국남성이 한국여성과 결혼해 신귀화인이 되는 경우 대개 새 이름과 본관이 생겼다. 국적법 개정(1998년 6월)이후 귀화요건이 완화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모두 2만6,381명으로 남성은 3,136명이다. 중국국적이 90%로 이상이고 필리핀, 베트남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방글라데시 무함마드 알리(45,한국명 유현우)씨는 한국여성과 결혼, 2004년 국적을 취득하면서 부인의 유씨성을 차용하고 본관은 자신이 살고 있는 경기도 시흥의 시화호를 연계해 '시화유씨'로 창설했다. 외국인 귀화자 대부분이 유현우씨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으며(이하생략)²⁶⁾

위의 기사와 같이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들은 귀화를 통해 창씨개명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여성의 성을 따르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파키스탄 커플 모임도 마찬가지였다. 온라인에 올라 온 글 중 L씨의 경우 자신의 성이 이(李)가인데, 남편 성도 이가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귀화 후, 창성 창분, 개명신청... 드디어 어제로 모든 것 마감했습니다.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수다로 떨지를 못했네요. 경찰에게 수난 당해 오물투기 즉결심판 통지서를 받지 않나 개명신청 하러 면사무소 갔다가 혼인 신고서를 보내서 면사무소와 대판 해대고... 암튼... 함께할 소식들이 쌓여만 가는군요. 그래도 모두들 지내는 듯해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올 신랑 이(李)가입니다. 앞으로 각종 서류들을 바꾸는 일이 남았는데...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L회원, 2003)

26) www.blog.chosun.com/hanmail 「조선일보」 2006년 8월 3일

따라서 남편들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시도한 귀화로 인해 여성들은 여성호주로서의 법적 지위는 잃었지만, 자신의 성을 남편에게 따르도록 함으로서 가부장제로의 재편입 과정에서 성들은 남편의 귀화로 인해 다시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 질서로 돌아가는 듯이 보이지만, 이는 비자라는 체류신분이 주는 법적지위의 불안함과 출입국직원과 같은 국가 권력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받는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피하는 방법으로 택한 가부장제와의 타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타협의 과정에서 호주제에 있어서 대표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姓)의 승계를 무시하는 과정들을 통해 호주제의 의미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즉 호주라는 주체의 대표적 상징성을 의미하는 성(姓)이 국제결혼 한 가정들에게 대표적 상징성보다는 실리적 추구로 인해 오히려 그 의미를 전복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남성호주와 여성호주가 가진 성차별적인 가부장제적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온 저항적 주체이자 다중적 주체였던 여성들이 실리적 목적-체류신분의 안정이라든지, 출입국 직원들과의 불편한 만남을 회피하기 위해-을 위해 남편을 귀화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오히려 가부장제적 질서로의 회귀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배우자의 창씨개명의 과정에서 성을 자신의 성으로 따르도록 함으로서, 호주제가 사실상 불필요한 제도이며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가를 드러내었다. 결국 귀화란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이 이주노동자인 배우자의 신분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선택한 타협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V. 탈식민여성주체로 경계 넘기

1.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

1) 단일민족 신화 깨기와 혼혈의 의미 전복하기.

결혼은 두 사람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출신 국이 다양한 만큼 한국여성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느 나라 출신인가에 따라 그 생김새가 영향을 받는다. 그것은 이주여성이 결혼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피부색과 얼굴윤곽에 따라 인종분류가 나뉘는다면 국제 결혼한 가정들의 자녀는 그러한 유전적 영향을 받으며, 민족적 순혈주의에 의해 그 자녀들은 혼혈인이라고 불린다.

즉 이러한 혼혈인이라는 호명이 가능한 것은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해왔던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교과서²⁷⁾를 통해 끊임없이 언급되는 단군신화의 유래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신화적 뒷받침만이 아니라, 국가

27) ‘족장 사회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르면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건국하였다고 한다(B.C. 2333). 단군왕검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라는 구절이 국사교과서에 실린 것을 보고 김진호는 교과서에서는 우리 민족사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고조선을 설명하지만,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체를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고조선의 지역, 문화, 종족, 언어, 정치형태, 사회 등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술이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 단지 단군왕검이라는 지배자에 의해 건국 된 최초의 국가형태가 고조선임을 강조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문제는 과연 그것이 학생들이 생각하는 국가의 형태인가 하는 점인데, 단군조선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많았던 군장국가의 하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민족의 기원’을 올려 잡기 위해 시도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2001),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참조하라.

에 의해 국민으로 동원되는 과정²⁸⁾에서 단결의 필요성이 대두될 때마다 단일민족으로서의 국민을 불러내었다.

단결이란 늘 어떤 타자에 대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단결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남’을 배제할 능력을 더 키운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박노자, 2003). 더욱이 ‘단일’을 강조함으로써 피의 순수성을 주장하고,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타 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가지며 자라 온 한국인에게 피부색이 다른 피가 다른 것과 동일시되었으며, 국가가 다른 것은 민족이 다름을 의미했다. 이러한 다름이라는 차이는 차별의 정당화를 유지해 오는 기제였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적 감정을 당연시 하며 살아 온 한국사회는 앞의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양공주’라는 불리는 여성에게서 출생한 자녀들을 혼혈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였다는 점에서 혼혈이라는 의미는 부정적 이미지로 굳어 왔던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런데 아무래도 좀 남자들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남자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지 않나, 남자들 시선만이 아니라 그러한 시선을 그대로 갖고 여자들도 똑같은 거고 같고... 여자들 자체에서도 똑같은 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왜 처음에 미군들 들어와 왔구, 그 사람들과 결혼하면 전부다 양색시다. 그 관념이 요즘도 계속 갖고 있는 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미국사람들과 만나서 살았는데, 지금 오십년이

28) 박경태는 한국의 교육이 어릴 때부터 단일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강조해왔으며 ‘국민’을 교육하는 현장에도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언급하고, 국가의 깃발인 국가에 대한 맹세에도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이야기 한다고 본다. 단일 민족임을 자랑한다는 것은 곧 혈통의 순수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른 민족의 피가 섞이지 않았음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가정이지만, 이러한 ‘단일’에 대한 집착은 특히 국가간 벌어지는 운동 경기나, 일본과의 독도 분쟁시, 그리고 과거 역사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모든 국민과 언론이 하나가 되어서 민족정기의 회복을 외쳐왔다고 본다. 「한국에서 소수자 차별의 사회적 원인: 민족·인종적 소수자를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와 시민권』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7주년 기념예배 및 심포지엄(200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지났잖아요. 그 사람들뿐 아니라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학원 강사라든지, 진짜 군인이래도 순수하게 만나서 사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 여자 그런 양색시 여자 아니냐 하는 시선을 보면, 한번 만들어진 시선들은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요.(류진희,35세)

류진희는 한국사회 특히 남성들의 시선과 인식이 혼혈인에 대한 차별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은 좀 다른 것으로 보이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양색시와의 구분에서 읽어 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위험스런 구별 짓기가 될 수 있다. 물론 혼혈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적 해법은 다를 수가 있으나 전체 혼혈인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그 의미를 전복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지만 분명히 이주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가 이러한 한국사회의 인식에 대한 비판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살색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색깔이 있는 나라’, ‘대규모의 차이나타운이 없는 나라’, ‘국제결혼 여성을 미혼모로 만드는 나라’. 단일민족 국가 한국의 이면에는 이처럼 다른 인종에 대한 지독한 차별의 그늘이 숨어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혼혈인, 화교 등은 ‘단일민족 신화’의 희생양들이다.(중략)혼혈인에 대한 차별은 오래되었다. 혼혈인 김영미(가명,19)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어릴 적부터 김씨의 검은 피부와 곱슬머리는 놀림감이었다. 김씨는 “한국에 사는 한 자식에게도 혼혈인의 굴레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토로했다. 미군병사와 한국인 사회에서 태어난 미국계 혼혈인 수는 1970년대 3만명 이르렀으나, 82년 미국 정부가 미국계 아시아 혼혈인에 대한 이민 허용정책을 펴면서 현재는 2천명 선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한국을

떠난 것이다.(중략)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현대사 전공)는 “한반도에도 전쟁 등을 통해 수많은 유민들이 오고갔다”며 “한국인들이 단일민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상”이라고 지적했다. 29)

한편 “나는 튀기가 좋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낸 국제결혼 당사자인 강신주는 자신의 아이를 혼혈아, 또는 국제아 같은 단어로 부르는 것보다 튀기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으면서 혼혈이라는 용어는 잘 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혼혈이란 단어는 어떤가? 여러 사람들이 쓰라고 권하는 혼혈아라는 단어, 이게 나에게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다. 혼혈이란 말에서 한국의 순수혈통주의가 피 냄새처럼 섬뜩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아이는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이지, 피가 섞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나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피가 섞인 것은 아니란 소리다. 그런데 왜 피를 섞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일까? 혼혈이란 단어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의 피가 ‘다르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다. 틀린 소리는 아니다. 남편과 나의 피가 같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한국 사람끼리도 다르다. 나를 낳아주신 한국 엄마와 한국 아버지의 피도, 나와 나를 낳아준 엄마의 피도 다르다. 내가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 아이는 ‘혼혈’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³⁰⁾

고자카이 도시야키(Kozakai Toshiaki)는 ‘인종’에 해당하는 영어가 ‘human race’인데 이 ‘race’란 종(species)보다 더 하위의 구분으로, 인간 이외의 생물

29) 신윤동욱 기자 <작은차별 큰 아픔 - 인종. 민족/‘검은 살색’ 폭행 시달려 혼혈 손가락질 탈한국> 『한겨레』 2002년 5월 13일

30) 벨기에 남편과 자녀 둘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자신의 국제결혼 생활을 수필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쓰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할 것. 강신주 (2004), 『나는 튀기가 좋다』, 금토

인 경우에는 ‘아종’이라든지 ‘품종’으로 해석한다고 한다. 따라서 인류의 ‘race’를 인종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종개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는 ‘종’이라는 개념은 개체 간에 생식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인데, 인류는 어느 집단 사이에서도 교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 하나의 종으로 구성되어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생물학자들이 인종 개념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은 인종차별을 조장하지 않으려는 인도적 배려에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개념이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인종이란 객관적 근거를 가진 자연집단이 아닌, 인공적으로 구분된 통계적 범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신체적 특징(신장 체형 모발 혈액형 피부색 홍채의 색 두상 코의 모양 체모의 진한 정도) 주목하는지에 따라 구 분류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형질을 경시하고 또 어느 형질을 중시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흑색인종’, ‘백색인종’, ‘황색인종’이라는 세 범주에 의한 분류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지만, 다른 종류의 분류도 가능하다면서 자연인류학에서는 지금까지도 인종을 몇 가지로 분류해야 할지조차 의견의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방광석 역, 2003).

따라서 인종을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인종주의의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를 박노자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시기로 부터 연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족이라는 단어는 물론 민족에 대한 개념과 정의와 이론을 거의 다 일본에서 수입했던 일제 당시에, 191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 미국에서는 ‘중국인 추방령(Chinese Expulsion Act)이 효력을 발휘하고 황인종에게는 여러 시민권의 제한이 가해졌다고 한다. 또 호주에서는 황인을 노골적으로 겨냥한 백(白)호주의 정책’이 한참 시행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시아 각 민족의 자립 논리를 아시아 인종의 생존의 논리에 복속시킨 일제의 어용 이데올로기가 조선의 지성인들을 매료시켰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

를 휩쓴 인종주의의 격렬한 광기는 조선의 지성인 사회에도 매우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특히 기독교계가 백인 우월주의의 각본대로 백인들을 '선택받은 인종'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했고, 이미 상식화 되어버린 '백인 우월주의'나 '흑인 멸시론'이 이와 같은 일각의 자각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2003). 이렇듯 인종주의에 따른 차별의식은 참으로 뿌리 깊은 역사적 기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에도 여전히 우리 의식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탈식민화되지 못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탈식민화되지 못한 의식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커야 할 국제결혼의 아동들을 양육해야 하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며칠 전 TV에서 혼혈아들에 문제에 대해 다루었나보던데... 저두 아이들 부모로써 걱정이 되더군요. 저 밑에 미향언니 글을 보니 큰아이가 반장이 되었다구여. 잘 되었네요. 요즘은 공부만 잘한다고 뽑아주는 것도 아닌가 봐요. 아이들과 융화가 잘되는 아이 ...한마디로 인기가 있을 만큼 성격도 좋아야죠. 제가 아는 40대에 인도커플이 계신데요. 그분들 자녀도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반장이 되었다고 기뻐하시더군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본국에 보내는 분들도 있던데 전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키우고 싶거든요. 이렇게 잘 적응하는 우리 커플 자녀들을 보면 올 아이 미래가 밝아 보여요. 특별히 아이를 잘 키운다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 주어진 건 아니라지만, 여러 선배님들께 많은 조언 받고 싶어요. (Y회원 2003).

아이가 학교에서 적응을 잘하여, 친구들과 잘 지내고, 거기에 반장까지 되었다면 정말 대단한 일로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다. 왜냐하면 반장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단지 개인적 만족일 수 없는 의미를 갖는 것은 혼혈인과 더불어 회자되는 왕따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제가 은근히 걱정하던 부분이 결국 사실화 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아빠이기에 생김새가 달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기에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친구 중 한명이 외국인이라면서 아이와 놀아 주지 않는다면서 놀렸던 모양입니다... 우연히 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 봤더니... 울 아이 울면서 바다에 앉아 있더라구요... 그 상황을 목격하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에 마음이 상하더군요... 원래 아이들이란 그럴 수 있고...놀림을 당하더라도... 잠시 후에는 다시 어울려 노는 게 아이들이니깐... 괜찮겠지 했는데... 그래도 역시 돌아선 제 마음은 그렇지 않더군요... 아이들에게 다르게 일깨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K회원, 2004)

외모의 차이가 곧 놀림감의 이유가 되어야 했던 K회원의 글처럼 아이가 이겨내기에는 간단치 않은 또래집단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모든 친구들이 놀리는 상황이라 볼 수는 없어 우리 아이만 왕따 당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 한아이의 놀림이 자신의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부모로서의 고통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혼혈인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이 또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맞는 계기가 도래한다. 그것은 미식축구에서 2006년 MVP를 받아 언론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하인즈 워드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즘 다들 알다시피 하인즈워드(맞나여?) 열풍으로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PD수첩에서 방영되었고, 신문지상에서는 혼혈인에 대한 칼럼 내지 기사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죠. 하지만 신문 방송 매체를 통해 본 혼혈인에 대한 취재 내용이나, 기획의도 등이 저를 불편하게 만드네요. 문제, 문제, 문제... 어째 자꾸 뭔가 문제가 많은 또 하나의 집단으로 구성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이렇게 조망되는 것이 과연 사회인식

의 변화를 추동해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지... 신혼혈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진 '코시안'이라는 단어의 남용도 탐탁치않게 여겨 지구요. 교육부와 법무부가 국제결혼 가정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하네요. 근데 어째 초점이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에게 맞추어져 있네요. (J회원, 2006).

이러한 한국사회의 반응에 대해 국제결혼한 당사자이자 그 자녀를 출산한 여성으로서 J회원은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성공한 혼혈인으로서의 하인즈 워드로 인해 갑작스럽게 핫이슈가 된 것이 불편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출현이 혼혈인에 대한 논의를 가시화 시키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조명이 오히려 혼혈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대한 우려 때문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성공한 혼혈인에 대해서는 한국인으로 다시 불러내어 호명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한 혼혈인의 경우에는 문제아로서 낙인화 하는 이중적 시선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저는 아직 애기도 없고 미혼입니다. 어제 남일 같지가 않아서 PD수첩을 유심히 보았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보호 장치 없이 여린 아이들만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안타깝더군요. 저도 J님의 말씀처럼 어둡고 힘들게 사는 혼혈인들만을 보여줘서 혼혈인의 새로운 고정관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들 부모들의 인터뷰도 함께 보여주었으면 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편견이 심하지 않을 것 같은 또래 아이들의 냉담한 반응에 정말 귀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그게 과연 현실일까? 현실이라면 정말 여기 부모님들은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계시는 지 궁금해지더군요. 올해 안에 결혼을 하고 한국에 정착하고 싶은데 정말 저를 주저하게 만드는 방송이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떠나면 어떨까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현실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

해보는 계기였습니다(G회원, 2006).

G회원의 글처럼 하인즈 워드로 인한 조명은 오히려 혼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매체를 통해 노출되는 이야기들은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앞의 두 사례처럼 국제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은 반장도 될 수 있고, 때로 친구의 놀림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아이들의 반응 또한 각각의 아이들이나 거주하는 지역이나 그 부모의 영향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어떤 한 일면을 지나치게 부각시킴으로서 부정적 이미지만을 고착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나게 한 것이다. G회원의 말처럼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떠나서 성공한 사례가 하인즈 워드 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이 이 땅에서 살고자 하는 많은 커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왜? 평소에는 관심조차, 아니 미국에 사는지조차 모르다가 뭔가 좀 잘했다 뛰어났다하면 한국 사람입네 찾아가서 한국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지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튀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아이들이 83년돈가 미국에서 한시적으로 받아들일 때 건너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역시 미국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형편이었다는 것은 다 어디로 갔는지 하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5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현재에나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뭐 다 각설하고 반세기를 혼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신 분이 말씀하신 대물림이더라는 것이 어찌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혼자 우리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서울시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조사

한 백인우월적인 성향, 백인 같은 친구는 잘 사귀어 보려고 하겠지만 피부가 나보다 검은 아이들이랑은 앉기도 싫을 것 같다, 짜증날 것 같다 는 등은 역시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Y회원, 2006)

Y회원의 논의처럼 혼혈아동의 문제는 해석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 것이며,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만을 방송으로 내보낸 것은 고발 프로그램의 한계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로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Y회원의 말처럼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인종차별적 인식인 것이다. 더구나 하인즈 워드는 이 사회가 포용해 주지 않은 인종차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미국을 건너가서, 미국인으로서 성공한 것이기에 왜 한국인들이 그를 환영해야 하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그가 혼혈인 아동들에게 성공한 혼혈인으로서의 역할 모델은 충분히 해줄 수 있으나, 한국사회의 현실을 바꾸어내는 추동력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과 그것이 또한 앞의 지적처럼 성공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물론 방송매체에서 떠드는 외국인 엄마의 아이들은 한국말이 늦어서 문제이다. 울 나라 아이들도 늦게 말 때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울리다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금방 말이 느는지 엄마나라 말을 먼저 배우면 무슨 큰일이라도 생가나요? 외국인 아빠들은 못사는 나라에서 와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 한국인 가정에서도 서민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지 않던가요? 맞벌이들도 대부분이지요. (Y회원, 2006)

한국말이 늦되는 것이 마치 혼혈인의 문제 중 아주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언론의 유포에 대하여, Y회원은 그것은 일상에서 아이들 중 늦되는 아이들로 보는 것과 구분 지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는 서구인과 결혼 한

국제결혼의 가정에 대해서는 그들이 집에서 어느 나라 말을 쓰는지, 전혀 간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제3세계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것을 권유하고 마치 한국어를 못하는 것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언어의 위계화이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이는 일제시대 공교육 과정에서 일본어로만 교육을 받고, 창씨개명까지 강요받았던 역사적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언어를 식민화함으로 그 사고까지 식민화하는 것임을 경험하였음에도, 여전히 서구적 기준에서 신식민화의 상태로 영어에 의해 지배당하는 현실 속에서 다시금 그 언어가 국가의 위계서열에 따라 제3세계 언어를 한국어 아래에 위치하게 함으로서 여전히 탈식민화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단 사람들의 외모는 다른 것 정도는 그냥 인정하고 살면 좋겠다고 생각 해봅니다. 피부가 좀 하얗면 축복 받은 것이고 좀 검으면 덜 축복받은 것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엄마와 아빠를 닮은 것뿐이라는 것을 인정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외국인엄마들이 채워주기에 좀 부족한 부분 외국인아빠가 해주기에 약간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줄 수 있게 뭔가 방법을 논의해보고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일본학교에서 하는 수업을 소개해주었는데 그런 것도 실현되었으면 좋겠지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몇 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엄마들도 파키스탄언어와 문화도 배우고 아이들도 가르쳐보자 했는데 실행의 길이 먼가요? 요즘은 아이들끼리 어울리게 하는 것도 뜸해지니...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닌가합니다. (Y회원, 2006)

외모가 다른 것 정도는 그냥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Y회원의 글은

다인종 다문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이다. 그러면서 피부가 하얀 것은 축복 받은 것이고 피부가 검으면 덜 축복 받은 것인가라는 질문은 또 한편 요즘 연예계의 풍토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는 혼혈아의 이미지가 다른 의미로 재생산 된 것으로 데니스 오나 다니엘 헤니 같은 연예인의 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백인 계 혼혈인에 대한 선망과 환상적 이미지가 드라마를 통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냥 부모를 닮았다는 그녀의 주장처럼 혼혈인에 특별한 의식 없이 아이의 외모를 자연스럽게 봐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녀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그 방법으로 국제결혼 한 한국여성들이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파키스탄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기회를 갖고, 아이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혼혈인을 한국인으로 통합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제3세계에서 온 국제결혼 외국인 배우자들의 언어를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 절하 함으로서 그 출신 국가의 이주자들을 식민화하고, 피부색과 문화의 경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다중적 주체성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에 대한 온 국민의 관심 속에서 어려서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자고 제안하는 것은 그러한 신식민화에 대한 일상의 저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항은 제3세계 출신국인 남편과 결혼하고 또 그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인종과 민족에 대하여 민감해 질 수 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탈식민화된 주체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할 것이다.

2) 다문화주의를 전유하게 하는 이슬람문화와 일상에서 만나기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다는 것은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에서 오는 문화라는 차이와 함께 그 사람을 받아 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슬람이라는 종교적인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슬람문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슬람을 국가종교로 내세우는 나라가 많다고 해서 획일적 이슬람 문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며, 같은 나라일지라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그 분과³¹⁾에 따라,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이맘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개인 자신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다.

우리 신랑은 카톨릭이잖아요. 그런데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뭐 파키스탄에서 돼지고기 구할 수도 없었겠지만... 애들 유치원에 가가지고는 선생님한테 애들 돼지고기 먹이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아니 자기는 무슬림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요. (류진희, 35세)

왜 우리 신랑은 돼지고기 말고도, 해물도 잘 안 먹데... 아마 그쪽 지방이 해물류를 안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난 오징어나 꽃게탕 같은 게 너무 좋은데 같이 못 먹으니까 잘 못 먹게 되더라고...(김숙희, 48세)

31) 이슬람의 기본 교리와 관행(오주 육신)에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단합과 단일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사상에서 무슬림 세계는 여러 분과로 분할되어 있다. 무슬림들 사이의 분열과 갈등은 예언자 무함마드 사후부터 표면화되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예언자가 사망한 직후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었던 문제는 칼리파(후계자) 계승에 관련된 문제였다. 그 결과 무슬림들은 순니파와 쉬아파로 분열되었다. 약90%를 차지하는 순니파의 순니란 문자적으로 '무함마드의 순나(말과 행동, 즉 관행)를 따르는 자들'을 의미한다. 무슬림 세계에서 소수파인 쉬아파는 움마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슬람 - 이슬람 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이희수, 이원삼 외 지음(2001), 청아 출판사 책을 참조하라.

아 저번에 대판했잖아요. 짜장면 시켜 먹었다고... 남편 있는데서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날따라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남편 없겠다 하고 시켜먹은 거예요. 근데 그릇을 밖에 내놓았는데 본 거죠.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짜장면에 돼지고기 들어갔다고... 라면도 쇼트닝이 돼지고기 성분인지 보고요, 그래도 과자는 신경 안 쓰더라구요.(이수진, 29세)

우리 집은 과자에 들어 간 쇼트닝도 따진다. 우선은 내가 꼼꼼히 보지. 그래서 탕수육도 맨 날 치킨 탕수육 먹잖아.(이선미, 35세)

파키스탄 커플의 문화차이에서 기본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음식에서의 차이이다. 종교가 이슬람이어서 돼지고기를 꾸란에서 금기³²⁾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차이이다. 그래서 류진희씨의 말처럼 카톨릭이면 상관이 없는데도 이미 파키스탄이라는 지역에서 돼지고기를 먹어 본 적도 없을뿐더러, 사육 자체를 안 하고 있으며 이미 그러한 음식문화에 젖어 온 관계로 종교와 상관없이 돼지고기를 섭취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³³⁾이라 해도 돼지고기와 관련하여 금기의 범위를 단지 고기로 할 것인지, 라면 스프로 제한 할 것인지, 아님 과장의 쇼트닝까지도 제한 할 것인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초기 결혼생활에서 부부싸움의 단초가 되는 일이 많고, 음식메뉴를 고르는데 한계를 드러내기에 늘 먹는 것이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일상에

32)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은 ‘할랄’이라고 하고 금지된 것은 ‘하람’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돼지고기가 보유한 여러 가지 선충들이 몸에 해롭다든지, 또 어떤 학자들은 돼지의 습성이 나쁘다든지, 돼지고기는 사막 기후에 부패하기 쉬워서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 등등이다. 그러나 이슬람 신학자들은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금했기 때문에 무슬림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주 31)의 책 참조할 것

33) 이슬람종교를 믿는 신자를 무슬림이라고 말한다.

서 나름대로 갈등과 협상을 통해 조율해 나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요. 제가 비록 무슬림이 아니지만 그가 저를 개종시키려는 것도 아닌 이상 그가 못 먹는 걸 굳이 우겨서 먹자고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만큼은 집에서나 그이 앞에서는 먹지 않으려고요. 저도 될 수 있는 한 줄이고, 치킨이나 양고기를 주로 먹으려고 해요. 그래도 정 먹고 싶으면 나가서 아는 사람들하고 먹죠 뭐...(이수진, 29세)

이수진(29세)은 앞의 사례에서 처럼 짜장면으로 인해 부부싸움도 했지만, 자신이 개종을 강요당하지 않는 점을 생각해서, 남편 앞에서 먹지 않음으로써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문화를 존중하고, 또한 먹고자 하는 본인의 욕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과 타협을 한다.

글쎄 난 요리솜씨가 없잖아. 내가 다른 집안 살림은 잘 하는데 요리는 영 그렇네. 또 남편이 한국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해서 줘.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아주 맛있어. 일하고 오면 그렇게 피곤할텐데 그렇게 자기가 하네. 그래서 난 주는 거 받아먹어. 가끔은 내가 한국음식은 하지만...(김숙희, 48세)

한편 남편의 요리 솜씨가 흡족한 경우에는 주로 남편이 요리를 담당함으로써 먹는 일로 고민하지 않는다. 김숙희(48세)의 경우는 자신이 요리를 잘하지 못하고, 남편이 잘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실 파키스탄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요리는 전적으로 아내나 집안 여자의 몫이지만, 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살다보니 그들은 자기나라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리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그들 또한 요리를 즐겨워하면서 맛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김숙희의 남편 또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다. 그것이 한국여성과 결혼하면서 어차피 아내가 자기나라 요리를 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가 함으로서 가사분담도 겸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요즘 우리들을 위해선지 물론 아니겠지만 닭고기로 만든 반가공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더군요. 뭐 100% 닭고기만 사용했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비엔나소시지, 슬라이스햄, 김밥용햄등이 있고 심지어는 만두까지 나왔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하나씩 다 시식을 해봤는데 김밥용 햄은 1kg이라서 양이 너무 많더군요. 그리고 어제는 나빌라님의 소개로 만두를 샀는데 군만두더군요. 튀겨서 시식을 했는데 뭐 야채가 많으니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더군요. 사실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는 콩으로 만든 것으로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것들로 대체를 하시지요. 사실 애들 있는 집은 나중에 커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면 접할 기회도 많고 식욕도 생길 것도 같고.. 아무튼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가 봅니다. 만두시식은 팬찮았습니다.(Y회원, 2001)

먹을 만 하다니 다행입니다. 저두 한번 먹어 봐야 겠군요. 김밥용 햄은 좀 질기더라구요. 크기도 크고... 후랑크 소세지두 있는데 전 그게 켈 먹을 만 하더군요. 값도 저렴하고 양두 많고. 스팸처럼 생긴 건 부드럽구 맛있어요. 며칠 전엔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남편도 아주 잘 먹더군요. 그 회사 없었음 햄은 꿈두 못 꿨을 고암... 방글라데시에 있을때 남편이 햄을 한번 사 왔는데 통조림에 든 거였어요. 입덧 중에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때도 부대찌개 끓였었는데...(N회원, 2001)

이렇듯 음식에서 돼지고기를 빼고 요리하자니 여성들은 음식 재료를 구입하는데서 상당히 애로를 겪게 된 것이다. 햄이라든지 하는 것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간단한 음식조차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

모회사에서 출시한 치킨 햄이 이 결혼한 여성들에게 구원처럼 다가 온 것이다. 그동안 먹지 못했던 햄을 당당히 남편 앞에 내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단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아이들에게도 쉽게 간편 요리를 해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야채만두처럼 돼지고기가 빠진 냉동식품 찾기는 결국 즐겨먹던 음식을 먹되, 남편의 문화적 차이도 존중하고 자 하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두가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왜 그렇게 불평등하게 산대요???? 여자가 좀 띠리리(?)...남자는 좋겠네요
여자가 알아서 기어주니....그러면 지금도 외식할 때 소주한잔에 삼겹살 불고기
즐거먹는 친정 부모나 그 가족들은 뭐가 되나요??? 그곳에서 머리 굳은 남편이
좀 후진국 형 버전으로 (제가 보기에) 나오더라도 이쪽에서는 좀 더 세련되고
보편적인 선진국 형 버전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아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건 첫째, 과연 이 '사랑이라는 신화'속에 감
춰진 거짓과 진실을 통찰해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지... 둘째, 여자는 결혼
에 따라 이리저리 모든 게 뒤바뀌는 가변적이고 종속적인 존재인가 하는 우리
의 '여성성'에 대한 깊은 고민... 아마도 이런 것들이 돼지고기 문제를 떠나 먼
저 우리 앞에 더 큰 비중으로 놓여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회원, 2002)

K회원은 이렇게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남편을 위해 안 먹는 행위에 대하여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오는 것으로 여성이 결혼에 의해 쉽게 변화하고 종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편의 그러한 돼지고기 터부에 대하여 머리가 굳은 후진국 형 사고라고 말하면서 좀 더 세련되고 보편적인 선진국 형 버전으로 대응하는 지혜가 아쉽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방식에서 선진국 형 사고라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나

온 것인지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돼지고기에 대한 터부를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선진국 형 버전이라기보다는 선진국이 내포하는 서구적 시선에 사로잡힌 의식으로서 사실 돼지고기 금기가 유대인에게서도 금기시 되는 고기라는 점과 인도에서는 소고기를 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다 후진국 형 사고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여성의 종속과 관련지어서 이야기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

파키스탄 사람과 친한 사람들은 잘 안다. 메뉴판 고를 때의 그 난처함을... 피자를 먹을 때도 그 맛있는 콤비네이션피자나 불고기 피자는 는 먹지도 못하고, 야채피자만 먹어야한다. 난 토끼가 아니다. 주머니 사정이 난처함에도 돼지갈비가 아닌 소갈비를 먹어야하는 사치 아닌 사치를 부려야하며, 부드러운 햄버거가 아닌 텁텁한 치킨버거를 먹어야한다. 죄 없이 대량 학살당한 닭들의 '꼬끼요'울음이 밤마다 나를 괴롭힌다. 순대는.... 입에 꺼내지도 못한다. 족발? 미친척하고 한번 먹는다고 해보자... 그날로... 알라의 이름이 수없이 오르내리며, 일장 뭘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설교를 몇 시간씩 들어야 할지 모른다. 특히, 남편 같은 경우는 눈이 하도 커서 화가 나면 눈알이 꼭 떨어질 것 같아 손을 받쳐줘야 할 것 같은 생각마저 든다. 나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가 부드럽고 고소해서 질긴 소고기보다 좋아하는 편인데, 남편을 만나면 입에 났 수도 없다는 것이 참 마음 아팠다... 그 흔한 소세지도 못 먹었다... 먹으면 뻗긴다...햄버거 먹다 남편한테 전화 와서 "영...나 치킨버거 먹어~" 뭐 이렇게 거짓말 한 적도 많다. 그러나...나의 이러한 어리석은 불만은 곧 나의 사고를 전환하면서 조금씩 사라져 갔다. 그 **사고의 전환**이란... 내가 강아지들을 무지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것을 무지 싫어한다. 그리고 강아지뿐만 아니라, 동물들 그 자체를 참 좋아하는 편이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돼지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돼지고기 하나라도 안 먹음으로 해서, 잔인하게 도살당할 동물의 수를 하나

라도 줄일 수 있다면..참 좋겠다는 생각 말이다... 개고기 먹는 것을 비난하면 돼지고기 먹는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그렇다. (K회원, 2003)

K회원의 글은 일상에 돼지고기를 금하는 종교적 차이가 간단한 피자주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금전적 사정과 상관없이 비싼 소고기 갈비를 시켜 먹거나 자신의 기호를 무시하고 먹어야 하는 일상의 갈등을 겪은 것이다. 그러한 갈등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짓말을 해가며 먹어야 했던 햄버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들은 그녀 스스로의 고백처럼 사고의 전환을 통해 바꾸어 버린다. 못 먹는 것이 아니라 먹지 않는 것으로 전환 하는 것 말이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돼지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에 대한 순응적 합리화로 비쳐 질 수 있으나, 그보다는 타문화에 대한 수용과 타협 없이는 함께 살아간다는 일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혼을 통해 타문화를 만나게 된 여성들은 이미 일상에서 어떻게 문화와의 차이를 갈등의 과정을 넘어 다양성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존중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 낼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이렇듯 종교와 문화가 분리될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는 파키스탄 남성을 배우자로 둔 여성들은 더 나아가 비록 한국에 살고 있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일 년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라마단³⁴⁾에 대해 알고자 노력 하고, 그

34) 이슬람 종교의 의무로서 5행의 네 번째가 쇠움(금식)이다. 해마다 이슬람력 9월인 라마단 한 달 동안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먹거나 마시는 것이 일체 금지된다. 담배를 피워도 안되고, 부부관계도 금기사항이다. 비록 종교적인 의무이기는 하지만, 역시 이슬람 특유의 융통성과 관용성을 반영하여 임신부나 해산모, 생리중인 여인, 노약자, 환자, 어린이, 정신이상자는 금식에서 제외된다. 여행자에 한해서는 금식을 할 수 없다면 후일로 미루되, 금식을 깬 날짜만큼 따로 해야 한다. 금식은 개인적으로 알라에 대한 순종과 그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정신적 훈련이며, 사회적으로는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에 대한 동정과 모든 무슬림들의 연대의식과 동등의식을 권장하는 집단훈련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하라. 정수일, 「이슬람 문명」(2002), 창작과 비평사

의미에 대하여 공부하고, 옆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고행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한다. 그 중에는 본인이 개종하여 무슬림인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내일부터 라마단 성원이 시작 됩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도 널부터라죠? 이 컴티에도 무슬림 계시져? 건강하게 단식 마치시구요. 라마단 내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아 쌀람~!!(N회원, 2001)

아 내일부터 시작이네. 근데 난 어떡하면 좋아? 아직 나의 귀여운 공주가 모유를 먹으니...아 슬퍼다 이번엔 해볼려고 했는데.^^; 나빌라님도 할 건가요? (R회원,2001)

아기 모유 먹이는 것두 아니구 아픈것두 아니니... 알함두릴라. 근데 지금 마술에 걸려서리 월요일이나 되야 시작 할 것 같네요. 단식 못 하시더라도 라마단 달은 신성한 달이니 특히 정숙하게 보내야 되는 것 아시져? 제 파키스탄 친군 낮 동안 텔비랑 음악두 듣지 말라구 하더군요. 행복한 한 달 보내세요.(N회원, 2001)

N회원과 R회원은 본인이 무슬림으로 개종한 경우로서 라마단 기간에 대해 이미 많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처음 올린 글은 라마단을 축하하는 글이지만, 다음에 단 답글은 아기수유중과 월경 중에는 금식을 금하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라마단의 의미가 단순히 음식을 안 먹는 금식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기간을 통해 몸을 정화하는 기간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남친을 만나고 횡수로 세 번째 맞는 라마단이에요. 라마단이 끝나고 나면 한눈에도 알아볼 정도로 많이 헬쓱해지는 게 사실이지만 반면에 얼굴은 참

밝아지는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금식과 금욕의 결과인지 마치 수행자의 얼굴처럼 얼굴에 맑은 기운이 더해지더군요. 올해 라마단은 다른 해보다 걱정이 더 된답니다. 근래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남편이 살이 좀 빠진 상태에서 라마단을 맞다 보니 그의 건강이 실은 많이 염려가 돼서요. 엄마한테 아침에 그런 걱정을 살짝 말씀드리니 잘 아시는 한의원에 예약을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라마단을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하시나요?(J회원, 2006)

실사 개종하지는 않았다 해도 몇 년의 세월을 거쳐 옆에서 라마단을 지키는 상대를 보면서 그 변화를 알아챌 뿐 아니라 건강까지도 함께 염려하게 된다. 더구나 J회원의 경우는 결혼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라마단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 문화 포용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이 일상에서 자신의 남편을 통해 이슬람을 접하는 한국여성들과 달리 한국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못하였다. 이슬람을 회교로 부르는 한국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한손에는 코란(꾸르안의 서구식 표현), 다른 손에는 검’이 징표인양 회자되고 전쟁과 테러의 대명사로 지목되어 왔던 것이다(정수일, 2002). 이희수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슬람의 호전성과 종교의 강압적 전파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서구인들이 이교도에 대한 적개심과 확산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한 위기감에서 만들어 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슬람의 전파가 무슬림의 종교적 의무이기는 하지만 무력에 의한 이슬람 전파에 대한 어떠한 흔적도 꾸란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 오히려 꾸란에서는 분명한 단어로 ‘종교에는 어떠한 강요도 있을 수 없다.’는 상반되는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2001). 이러한 사실은 회원들의 글에서나 인터뷰 당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

왜 내가 종교가 없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니까, 나도 좀 바꿔 볼까 싶어서 성원에 갔어. 그런데 거기 무슬림으로 개종한 한국여성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여성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L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더라고. 자기는 남편이 강요한 것도 아닌데 꾸란을 보니까 마음에 쪽 와 단더래. 그러면서 그렇게 와 다가와야만 믿을 수 있지 억지론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남편이야 내가 믿으면 좋아하지. 그런데 난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 남편은 맨 날 인터넷 켜놓고 기도문을 읽으면서 열심히 해. (김숙희, 48세)

자신이 종교가 없어서 큰 갈등을 겪지 않았던 김숙희는 자신이 개종을 하면 남편이 좋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잘 안되어서 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녀에게 있어서 개종의 사유가 마음에 와 닿아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이 책을 막 사다 주더라고요. 이슬람과 관련된 책으로 그러면서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쁘기도 하고 하니까 잘 안 읽게 되요. 가끔은 좀 읽으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체크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뭐 꼬박꼬박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씩 생각날 때 마다 봐요. 요즘은 차라리 교회를 가볼까 싶기도 한데...(이수진, 29세)

남편들은 사실상 부인이 자신과 같은 종교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책을 사다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수진 또한 그 책을 가끔 읽기도 하지만 그것이 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에 오히려 교회를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 종교란 외부적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마음이 움직여져야 하는 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돼지고기와 같은 음식에서는 갈등 속에서 나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힘든 과정들을 보여주지만, 오히려 큰 맥락에 있는 종교의 선택에 문제에서는 오히려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연극하고 뭐 좀 앞에서 발표를 했어요. 남편이 왔잖아요. 비록 앉아서 즐기는 했어도... 사실 그런 것 보면 우리 남편이 많이 오픈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구요. 집사님들이 집으로 심방와도 그다지 신경 쓰지도 않아요. 담배 피우려고 나간 것 외에는 (박재경, 32세)

박재경의 경우는 오히려 남편을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고 데리고 간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거부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함께 가기는 하지만 별 관심 없이 본다. 이것은 남편이 즐겼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교회에서 심방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일요일마다 눈치가 사실 보이긴 해요. 교회 간다고 막 준비하는데 그 사람은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전 파키스탄 살 때도 교회에 갔어요. 라호르에 있는 한인교회요. 주로 대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요일마다 남편이 차로 데려다 주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제가 어디 가는 지 잘 몰랐지만 남편은 제가 교회 가는 걸 인정해 줬어요.(윤소라, 35세)

요즘 신학 공부하느라 바빠요. 제가 이런데 관심이 있어요. 외국인노동자문제라든지, 선교라든지 하는... 그래서 공부 끝나면 그런데서 일을 해보려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10년 이상 넘었는데 이제 나도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인자 인정해주네요. (정미경, 40세)

윤소라의 경우는 분명 남편의 눈치를 본다고 말함으로서 사실상 자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남편에게 있어서 그다지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파키스탄에서 거주할 때 남편이 교회로 데려다 주었음을 이야기함으로서 종교문제에 있어서 두 부부간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

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정’은 정미경의 사례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행위를 넘어서 신학을 공부하는 그녀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부부간의 합의가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미경의 사례는 파키스탄 남성을 만남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 문제를 자신의 종교와 연관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저 개종했어요. 전 결혼 전부터 이슬람에 대해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카톨릭이었잖아요. 그런데 카톨릭에서 뭔가 안 풀리는 부분들이 여기서는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개종하는 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성원에서 안했어요. 강요하는 것 같아서... 근데 신랑은 그러더라고요. 이슬람은 전과할 의무가 있다고, 그런데 상대방이 믿고 안 믿고는 상대방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만 무슬림은 전하기만 하면 된대요. 전 카톨릭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에서 종교회의를 거쳐 속국들에게 종교를 강요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싫어졌어요. 지금은 공부중이에요. 제가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아기가 어려서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김애숙, 29세)

김애숙은 자신이 카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있을 때 해결되지 않았던 종교적 의문을 이슬람이라는 종교에서 해결한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알게 되어, 꾸란을 읽고 거기에 매료된 여성들은 무슬림으로 개종하기도 하였다. 그녀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온라인에 ‘무슬리마’³⁵⁾라는 카페를 만들었다. 하지만 파키스탄 커플모임은 무슬림이든 비무슬림이든 상관없이 회원가입이 가능한 커뮤니티로서 사실상 무슬림으로 개종한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연구참여자들도 무교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 그리고 무슬림 순이다.

35) 이슬람을 믿는 여성들이라는 뜻

위의 인터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들은 결혼 했다고 해서 자기를 따라 무슬림으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여성들도 가끔 이슬람을 전파할 의무를 가진 무슬림 남편으로부터 개종의 권유를 받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 않은 것이다. 김애숙은 오히려 남편의 개종의 권유 이전에 이미 자신이 먼저 이슬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 자신이 개종하게 된 계기도 있다. 따라서 동일 집단으로서의 여성과 남성으로 범주화 할 수 없다(문현아 역, 2005)는 모한티의 말처럼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을 수도, 그 남성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묶어 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인식은 이슬람 종교는 강압적이며 폭력적일 뿐 아니라 특히 여성을 억압하는 가부장적인 종교로만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에 일조를 한 것은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빌미로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정치권과 미디어가 이 전쟁을 아프간의 인권을 회복시켜주는 인권전쟁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아프간 여성들은 탈레반 지배의 최대 희생자로 부각되었고 부르카는 탈레반 폭압의 상징으로 이미지화되었다.(박희경, 2002). 김영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남녀의 활동영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일체의 공적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푸르다(prudah)제도라든가 부르카 착용을 철권적으로 강요하는 탈레반의 정책이야 물론 반여성적이지만, 부르카를 입은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전쟁수행의 '인도적'명분을 보강하려는 미국 또한 여성을 이용대상으로 삼기는 매한가지라고 보고 있다(2002). 이렇게 부르카를 비롯한 모든 베일(푸르다, 히잡 등)여성억압의 상징으로 보아 온 서구적 시선은 그대로 한국사회의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문화를 배경으로 자라 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여성들은 기본적인 음식문화 차이(돼지고기 금기), 그리고 종교적 차이(라마단: 금식)에 대하여 남편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완전히 남편에게

동화 되는 것이 아니라 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 본인이 그 종교를 선택함으로써 함께 하고자 하거나, 종교를 개종할 수는 없지만 서로의 차이에 대하여 존중하되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나 타협을 통하여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이나 타협은 적극적으로 때로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집안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존중하면서도 자신들이 좋아하던 기호식품이었던 것을 재료를 달리 해 만든 것을 찾아서 선택하는 적극성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는 자유롭게 섭취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소극적으로 타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성의 행위성(agency)은 음식 외에 종교적 행위인 라마단이 도래 할 때 같이 금식하기도 하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존중하는 자세로 이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의 금식을 도와주기 위해 건강을 챙겨주는 행위들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상관없이 자신들이 그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여 행위 하였다. 한국대사관에 올려진 공지사항처럼 한국여성들은 각종 사이트에서 파키스탄인을 혐오하는 발언을 수없이 보게 된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해서 자신이 주체가 되어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행위주체(agency)적 일 뿐 아니라, 인종과 젠더, 종교와 문화, 경제와 교육 등 다양한 차이들에 대해 갈등과 이해와 수용과 협상을 통해 늘 변화해가는 다중적 주체(plural subject)들이었다.

2. 집단적 주체로서의 여성 : 공동체(community)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은 분명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나서,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결혼을 하고, 서로 다른 모양으로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공통점은 파키스탄인이라 불리는 남편이다. 한국인으로

서 20년 이상을 살아 온 여성에게 파키스탄 남성과의 결혼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새로운 국가와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는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한국만이 아닌, 파키스탄도 포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강하게 하는 계기는 최근 일어났던 파키스탄 지진 재난으로 인해서였다. 여성들은 그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동정적인 탄식만을 내뱉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다.

토요일날 점심때쯤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는 데 속보가 나오더군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에 진도 7.6정도의 강진이 일어났다는... 그래서 인도채널 이랑 파키스탄 채널을 보았는데 별루 뉴스가 아직은...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다고만 하고 한 1000명쯤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보다는 외곽지역에서 발생해서인지 아무래도 인도쪽이 카시미르쪽에 피해가 있다고 하는 걸 보니... 만 명 , 이만 명하더니 이젠 거의 삼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듯 하다고 원래 지진이 안 나던 곳이니 대피도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 쪽은 전화가 안 되는 듯한데 빠른 복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 때라서 학생들의 피해가 많다고 한테 다들 많은 기도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별일 없으신 분들은 없다고라도 굴비 달아주시구요. 헤드라바드, 위쪽 편잡쪽이 시택이신 분들 전화해보시고 연락들 바랍니다. (Y회원 2006)

파키스탄이 지진으로 3000여명이나 사망이라는데...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남편들 가족은 무사한지요... 남편과 내가 알고 있는 몇 몇 분들은 다행히 피해는 없다는데... 아마...이슬라마바드쪽이 피해가 큰가봅니다. 울 나라에서도 구조대가 파견된다는 소식이 있네요...(K회원 2006)

이렇듯 지진이 나서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 지역에 큰 피해가 난 걸 알게 된 여성들은 우선 각 회원들의 가족들이 무사한지 안부를 묻고, 다음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 회원과 그 지역의 파키스탄인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하기로 한다.

파키스탄 신랑을 둔 우리들이 좀 앞장서서 나서야 할 듯한 시간인데, 일단은 울 회원님 중 가족 분에게 먼저 힘을 실었으면 합니다. L회원님 말씀에 의하시면 비행기 예약을 하셨고 다음 주에 출발을 하신다고하시니 의향이 계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송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지금이 안되겠거나 차후에 생각하시는 분도 입금을 시키시면 따로 모아서 모금하는 곳에 내는 방법도 있을 듯 합니다. 쓰나미 때 스링랑카 분들이 모금을 앞장섰듯이 우리 파키스탄이가 앞장서서 돌아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Y회원 2006)

그래도 다른 가족들은 이번 지진에 별 피해가 없으신듯하여 다행인데... 유독 L회원님네 남편 분 가족이 아주 큰 화를 당하신거 같네요. 어제 통화해보니... 큰누님도 자녀분을 한명 잃으셨고... 작은 누님은 자녀를 모두 잃으셨고..부모님과 형님네 가족은 소식불통이라는군요. 칠희님 남편분이 하늘이 무너져 내린 충격으로 너무 상심하고 있음이 눈에 선하답니다. 그래서 울 모임 몇 분이 의논한 결과 다만 얼마씩이라도 모금을 하여 칠희님 남편 분 다녀오시도록...들어가는 비행기표라도 끊어드리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들어가는 비행기표라도 울 모임에서 끊어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모임도 수다만 하지 않는 진정 가족처럼 서로 위하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회원에게는 여기에 글 올리는 자체도 미안해서 몇몇 사람만 모금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래도 여기 회원들은 모든 분들이 파키스탄이를 사랑하는 분들이니까... 다들 알아야하고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회원님이 이글을 읽고 기분 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K회원 2006)

이렇듯 파키스탄에서 일어난 지진을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된 후 회원들 중 L회원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Y회원과 K회원은 모임이 수다의 장으로만이 아닌 어려움에 처하게 된 회원들을 돌아보고 함께 모금을 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 것이다.

거리모금을 부천시청앞에서 할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어디를 가나? 고민하고 찾는 중이었는데 K언니께서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전화를 해보고 할까? 했었는데 포스터에 부스에 파키스탄이 없는 듯하고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곳이 중앙공원과 마주한 곳 이여서 주말이라 공원에 나오신 한국인들도 많을 듯 하여서 그냥 모금박스를 만들어서 갈까합니다. 시간은 대략 한시에서 두시사이쯤 요즘은 4시 반경이 지나면 쌀쌀한 기운이 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전에는 마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소가 넓다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금방 돌면서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30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Y회원 2006)

이와 같이 회원들은 모금을 자체적으로 하였을 뿐 아니라,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거리모금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모금운동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지난 주에 외국인들을 위한 행사에서와는 달리 일부 외국인분들이 계셨고 다수의 한국인분을 한 모금 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지난 주 생각하고 쉽겠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그냥 확~ 가시는 분들 손을 저으시면서 가시는 분들 운동하러 나와서 돈이 없으시다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모금이 될려나? 추운데 고생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다시 심기일전 끝까지 따라가면서 설명하고 작은 것이나마 나누었으면 한다는 말씀에 없으면 없는 대로 주머니의 동전이라도 탈탈 털어 넣으시는 분이냐 동전이 적다고 굳이 지폐를 주시겠다는 분들 이러한 분들이 큰 힘으로 다가와 더욱 더 밝은 모습으로 따라가면서 설명도 해드리면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앓 빠졌는데요. 이번엔 이쁜 모금통은 이쁜 A가 이쁘게 만들어 와서 가만히 들고 있어도 문구가 눈에 속 들어와서 찾아오셔서 넣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추운데 유일하게 파키스탄남자들로써 고생한 S아빠와 R아빠 당연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로써는 쉬운 것이 아니었을텐데 나와서 통 들고 조금만이라도 넣으라고 부탁하고 다녔고 제일 많이 모금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어제는 웬지 적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남성분들의 노력이 있어서인지 부천시청과 중앙공원에서의 모금은 3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못 오신 분들께서는 직장이나 주변의 모임 등 도와야한다고 꼭 선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작은 돈이 모여서 큰돈을 이룬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Y회원 2006)

이는 온라인 공동체에 소속된 회원을 돕는 수준에서 한발 나아가 파키스탄 지역을 돕는 모금운동으로 나아간 것이다. 단지 선행을 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들은 진심으로 파키스탄인들을 가족으로서 돕고자 했다는 것이다. 결혼관계에서 오는 핵가족화 된 개념이 아닌 파키스탄 지역의 사람들의 고통을 마주함에 있어서 그들 까지도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받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여성들은 남편의 종교가 이슬람인 관계로 이슬람이라는 세계로 관계가 넓어진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테러국가로 지명하는 부시 대통령의 시각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침공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였다. 소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으로 세계를 우방과 적국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평화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대량학살을 자행 하며, 이슬람 세계를 친미적 정권과 그렇지 않은 정권들로 분열 시키고, 미국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국가들을 위협한다. 이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파키스탄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파키스탄인과 결혼 한 여성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자료실의 '뉴스입니다'의 게시판에는 대테러 전쟁관련 뉴스가 2001년 10월 26일을 기점으로 20건 정도가 올라와 있었다. 파키스탄과 결혼한 여성들이 무관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한국정부가 미국의 대테러 전쟁을 동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국에 나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이슬람 종교를 믿는 다는 이유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지목했고, 그들을 조사하기 위해 같은 국가 출신의 사람을 정보원(프락치)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한겨레신문을 보시면 귀화한 파키스탄인에게 정보원 노릇을 요구한 것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대번에 우리 남편 이야기인줄 아실 겁니다. 날짜는 10월 30일자이고요. 인터넷 검색도 되고, 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보도도 나갔구요. 사건의 요지는 국정원 직원이 이라크 파병문제가 불거 질 때마다 와서 모스크나 기타 장소에서 테러와 관련있을 만한 사람들을 알아봐줄 수 있느냐는 거였죠. 그러나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화를 가라앉히고 이일을 목사님과 의논했죠. 그 다음 주 목요일 국정원 직원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왔을 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와서 가게로 갔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 나를 보자 “죄송합니다”를 연발 하더군요. 뭐 전임자가 좀 오버를 했더니요. 그래서 저도 이일에 대해 언론에 흘릴까 생각중이라고 말했죠. 그러자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계속 죄송하다고 했는데, 왜 남편에게 당당한 이들이 저에게는 이렇게 저자세로 나왔을까요? 혹시 우리 모임 중

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지?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안의 분열을 생각해봅니다. 국제결혼 가정들끼리의 반목을 조장하는 이러한 공권력의 횡포에 대해 대항해야 할 거 같아요. 결혼 초부터 무고한 신고에 여러 번 시달려야 했던 저희는 그 커플이 얼마나 잘사나 두고 보자.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들도 안됐더군요. 자신의 약점으로 인해 경찰 꼬나플이 되었겠죠. 약자인 것이 불쌍한 거죠. 결혼 이후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었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국가의 감시대상으로 살아야 할지...남편이 무슬림인 것이 테러집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왜 이렇게 오해되어야 하는 건지...(J회원, 2003)

이렇듯 테러와의 전쟁 이후에는 이슬람을 종교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주노동자들은 감시의 대상이었고, 결혼한 파키스탄 남성들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더구나 오픈 된 공간에서 사업을 장사를 해 온 경우에는 형사들의 협조요구를 무시 할 수 없는 약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한 남편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 동조하지 못하도록 남편을 설득하거나, 그렇게 요구하는 정부기관 직원에 대하여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받기도 하였으며, 언론에 알리기도 하였다.

얼마 전엔 가까운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차량사고로 파키스탄인이 연행되어 왔는데 한국말을 못 한다해서... 사실 6년이상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울 신랑 처리 다하고 '앞으론 저 부르지 마세요. 우리 넘 힘들어서 돈 벌어야해요.' 하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 기사를 보면서 J님 신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퍼오지도 않았었는데... 전화는 조심스러워 하지도 못 하구... 사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형사분 이야길 했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울 신랑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울 신랑과 아주 깊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예감이 맞았었습니다. 그 이후론 매일매일 울 신랑을 제가 감시하게 되었죠.... 그래두 또 남자들이라구 지들끼리 썩덕데는건 어쩔 수 없구... 에궁... 사실 그들 또한 피해자겠죠. 한국에서 살아가려면...(L회원, 2003)

안 그래도 낮에 검색하다가 그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 신문에 났더군요. 그래서

전화를 드릴까? 요즘 그래서 좀 뜸 하셨나 등... 여러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는 종교가 달라서인지 아직 한번도 전화가 온다던지 찾아온다던지 하는 것은 없는데... 문득 M언니 생각이 나더군요. 재작년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몇 년만에 집에 다녀왔을 때 등 그들이 왔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는 참 할 일도 없다. 결혼한 사람도 가만히 안 놔두냐? 등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음... 참 옷깁니다. 그곳이 그렇게 정보원을 위한 비용으로 돈을 마구 뿌리고 다니나보죠? 생활보조비 한 달에 겨우 삼사십 만원으로 살아가는 힘든 사람들도 많은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부인지... 아무튼 정말 서로가 힘을 합쳐도 모자라는 판에 분열을 일으킬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점 잡힐 이유도 없고 그들에게 누군가를 넘기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나라 따라 하기 나라인가 봅니다.(Y회원, 2003)

이러한 것에 대해 L회원은 국제결혼 한 파키스탄 남성을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로서 피해자로서 보고 있다. 하지만 Y회원은 그러한 일이 서로를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일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기관 직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얼마나 미국의 존속이며, 미국의 판단에 따라 좌지우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미국을 따라하고 있다고 까지 보고 있다. 사실상 미국의 경제적 문화적 군사적 제국주의의 의해 신식민화 상태인 한국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거슬러가는 커녕 편승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로서의 파키스탄 커플 모임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정보원 노릇을 거절했다는 것은 전체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잘못된 시각에서 오는 이슬람 사회에 대한 편견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의식의 확대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남자 친구나 남편이 불법체류자인 이주노동자이기도 하였고, 남편의 친구나 동료가 이주노동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성들로 인해 이주노동자 문제는 여성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 여성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자진출국 기간이 돌아오면 그러한 일들을 간과하지 못하며,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함께 해결 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단속이 심하다니 다들 걱정이 많으신 모양이네요. 남친이 저에겐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단속 강화라니 마음이 편치 않네요.(P회원, 2002)

2002. 11월 15일 매일경제 신문에 올려진 글 때문인지 자출 신고를 하신 분들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나 봅니다. 저희도 주변에서 잘못 아시고 계신 분들께서 2년 연장이 확실하듯 ("코리아 타임"지에서도 보았다고 하며) 문의들을 하시는데, 자진출국 시간은 얼마 남지 않고 더 계시고 싶으신 분들의 심정이야 이해를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할 것 같아 눈 아프도록 찾아서 자료실에 두 건이나 올렸습니다. 주변에 혹시나 잘못 아시고 계신 분들께 알려 드리시길 바라며...** 확정도 되기 전에 2년 연장이라는 기사가 나온 것 때문에 자진출국 신고하신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제까진 신랑이 그렇다고 우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찾아보니 그 어디에도 확정된 사실이 없더군요. 여러 가지 본국으로 가실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Y회원, 2002)

자진신고자 자신들은 불안해하지만, 사실 공장주들이 외부이탈을 막기 위해 지어낸 말들에 혹한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제조업 쪽에서 인력부족 및 부도, 폐업사태의 속출로 모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출입국에 확인해보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초강경 자세로 일관하고 있죠. 혹시라도 자진 신고 했던 곳이 부도나 폐업이 되었었다면 현재 출입국에서 직장이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경우 이동 신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입국한지 3년이 안되었다면 1년 연장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1년 연장의 세부사항을 12월 내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고 출입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곧 안내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법무부와 출입국의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입니다. 아직도 조울증이란 소리인 듯하기도 하고... 아마도 대선이 후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지켜봐야 할 사안인 듯 합니다. 전 이번 대선에서 좀 기대를 했더랬습니다. 헌데...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이야긴 없습니다. 아주 조용하죠? 이상하리만큼... 그렇게 강경하던 외국인노동자 인권단체에서 조차 숨죽이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아마도 대선이 끝나면 또 크게 소리 내어 외쳐대지 않을까... 두고 봐야죠? 암튼...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저로선 요즘이 참참합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L회원, 2002)

모임 초기 아직 불법체류 상태로 교제 중인 회원들을 위해, 결혼 한 여성들은 이주농자와 관련한 문제 중 가장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제출국을 위한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것은 단지 회원들만을 위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남편이 이주노동자로서 주변의 불법체류자인 이주노동자들과 직장동료로 또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거기에서 무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남자친구이든 남편의 친구이든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통해 인권을 고민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불법체류자 단속관련 항의의 글을 올렸더니 어제는 인천출입국에서 오늘은 법무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인천출입국에서는 미안하다고 잘못시인으로 사과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인천출입국에 확인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그래서...전 신랑의 말 뿐 아니라 옆에 함께 있었던 한국인 목격자의 이야기까지 듣고 올린 사실의 글이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이런저런 이야기로 단속의 고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실이었다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뿐인 건 알겠지만 그래도 성의가 꽤 씩하여, '요즘 엄청 바쁘실텐데 관심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고 문제시 하지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단 생각입니다. 항상 머물러 관망만 하고 있기엔 이제 열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동의해 주신다면 더 좋겠구요. (L회원, 2002)

더구나 L회원의 경우 적극적으로 법의 시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출입국에 문의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낼 뿐 아니라, 그녀는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적극적으로 항의 까지 하게 된다.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았던 단속에 대해 남편을 통해 알게 된 그녀는 그 사실에 대해 법무부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남편의 일로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남편이 불법체류신분이 없다 해도 전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간과할 수 없다는, 더욱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문제시 않으면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표현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도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항상 머물러 관망

만하고 있기엔 열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질문함으로써 좀 더 저항적인 주체로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여성들의 행위성(agency)은 남편이 전에 이주노동자였거나, 현재 이주노동자이거나 상관없이 파키스탄이라는 국가 출신의 남성을 만난 것을 이유로 작은 공동체(community)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넓은 의미의 공동체로 한국뿐 아니라 파키스탄에까지 확대 해석하고 이슬람 세계와 전체 이주노동자문제로 확대하고 함께 공존해야 할 공동체로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적 주체는 여성들이 '본의 아니게 묶여 있는' 공동체들(장소의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선택의 공동체들과 관계하여 형성된다. 장소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정체성은 선택의 공동체 안에서 의문시되고 변형되어 갈 수 있다. 선택의 공동체들은 자아와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위한 입장뿐만 아니라 대안적 사회 관계성에 대한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비자발적인 공동체들 안에서 억압적이고 확대적인 관계구조에 맞설 수 있게 한다. 공동체들이란 여성들로 하여금 복합적 의사소통 안에서 다양하게 유창한 능변을 발달 시켜주고, 자아들과 관계들에 대한 고도로 굴절된 의식을 갖게 하고, 가정에 대한 어떤 체험된 의미에 대하여 안/밖 구별을 문제 삼게 하며, 공적 공간을 재형성 시키고, 나아가 얽히고설킨 억압에 저항하는 지역적 투쟁들 속에서 상호연관성을 주목하면서 각각의 구체화된 위치 지어진 세계 안에서 특수하고 특별한 저항자-거주자가 되어갈 필요성을 발달시켜 주는 것이다. (윤혜린 역, 2005)

3. 파키스탄남성과 결혼 한 여성의 성적 주체성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이 한국남성들로부터 받는 비난 가운데 하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sexuality) 문제다. 한국여성들이 아랍계 남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잘생긴 외모와 성적 파워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아랍계 남성은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남아나 서남아시아 중동까지 다 포함되어 해석된다. 또한 국제결혼 한 한국남성들에 대해서 남성들은 그들의 섹슈얼리티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유독 한국여성이 외국남자와 결혼 한 경우에는 여

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천박성을 문제 삼고 있거나, 유혹에 잘 넘어가는 순진성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한 해석은 이슬람사회에서 유지되는 일부 다처제를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본다. 이러한 일부다처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여성들이 파키스탄 남성 그것도 이슬람을 종교로 믿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다고 할 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지게 된다. 그러한 우려를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사기 결혼으로 매도함으로써 한국여성들이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영사관 공지 : 국제 사기결혼에 주의바람! 게시일: 2003-07-29

1. 최근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이 한국 여성들과 사기결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들은 산업연수생(일정기간 기술연수 후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산업연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들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자식이 있는 파키스탄 노동자는 기혼임을 숨기고 한국인 (여성)을 유혹, 결혼하려 합니다. 이들은 서류상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사기 결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호적법은 아내를 4명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러니 기혼자인 남자는 서류를 위조해서 한국여성과 결혼한다. 아주 단순한 공지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공지가 어떻게 파키스탄 남성을 무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아내를 4명까지 두는 것이 사기결혼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은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유혹당하는 순진한 여성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정말 위험한 일반화가 아닐 수 없다.

. 파키스탄 노동자들은 매우 가난한 가정환경 하에서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우리국민(여성)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영국 국적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 자신은 대학(college) 졸업자라고 하면서 파키스탄에서 뜻을 펼칠 길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한다고 하면서 여성들의 인정에 호소한 후 사랑하고 있으니 결혼하자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College 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가 얼마나 저학력이고 무식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등학교 밖에 못나왔으면서 대학 나왔다고 속이고 서툰 영어와 이국적 외모로 여성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파키스탄 이주 노동자에 대한 설명은 외국인 혐오증에 가까운 설명이며, 한국여성은 그러한 서툰 영어를 구분할 줄 모르는 저학력 수준이라고 암시하고 있으며, 이국적 외모에 쉽게 유혹당하는 여자들로 상정하고 있다.

.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로서 음주, 남녀 간 자유연애는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바, 파키스탄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후 자유분방한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편승, 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리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변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취업 기간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불법체류하면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거나 위장결혼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국가가 음주와 자유연애를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또한 위험한 일반화이다. 이슬람 율법은 불변고정의 법이 아니며, 모든 국가가 동일한 이슬람법을 적용하지도 않는다.³⁶⁾ 더욱이 사회가 현대화 될수록 자유연애는 점점 허용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파키스탄 안에서조차 자유연애와 결혼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러한 일에 대한 사회적 응징이 가혹하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음주 또한 마찬가지로 본다. 돼지고기는 금기(터부)에 해당하지만, 음주의 문제는 자율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위반한다고 해서 불량한 자로 본다는 것은 해석의 차이이다. 또한 율법이 인간의 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율법을 완벽하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인간 또한 없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회교도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 한국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불량한 자로 규정하는 근거로 보는 것은 잘못된 인식일 뿐이다. 취업기간이 끝나도 돌아가지 않는 불법체류자신분이 되는 것이 사기결혼이나 위장결혼의 전제가 된다면 이는 잘못된 이주노동자 정책을 바꿈으로서 그들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하면 결국 체류의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이나 위장결혼이 준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일 뿐이다.

. 파키스탄 노동자와 결혼한 우리 국민이 시집을 방문 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서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혼하고자 하여도 남편이 동의해 주지 않아 정신병자가 되거나, 매를 맞는다고 울면서 귀국시켜 달라고 대사관이나 동포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위장결혼 관련,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실에 올라와 있는 한 민

36) 같은 이슬람 국가이지만, 터키와 인도네시아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들 사회에서는 무슬림이라고 해서 자유연애를 금하지 않고 있다.

원인의 제보(공개)를 아래 전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일부 파키스탄 노동자들이 산업연수의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오래 머물게 되면서 한국인들과의 접촉이 늘어가는 가운데 한국 여성과의 결혼 또는 교제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파키스탄 노동자들의 한국 여성과의 결혼을 빙자해 성적폭락과 경제적인(비자관련보증, 금품) 것을 요구하며 여러 한국 여성과 외국인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파키스탄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와 교제하는 것을 보는 시선이 따가운 한국사회의 인식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심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하고 또한 저와 같은 피해 한국 여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 피해를 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다시는 발을 드리지 못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민원실 제보(공개), 2003.7.28일자-

또한 여성들이 파키스탄 가족을 방문해도 비참한 가정 사정을 목격하거나 남편에게 처자식이 있음을 알고 후회한다는 것이다. 파키스탄 가족의 비참함은 어느 기준으로 설정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한국의 아파트 평수 35평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24평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이다. 비참함이란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일 뿐인데 어느 정도수준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일반화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극단적인 사례를 올려놓음으로서 공지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이는 불균형적인 근거이며 파키스탄 남성에 대한 왜곡되고 편협한 물이해를 드러내는 근거일 뿐이다.

정수일(2002)은 일부다처제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종 유행해온 일종의 혼인제도라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으로 일부다처의 발생 동인은 여자의 수가

남자의 수를 증가하거나, 한 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성의 욕구, 그리고 많은 자손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슬람 사회에서 일부다처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꾸란에서 “만일 너희가 고아들을 공평하게 대해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결혼을 할 것이니 너희가 마음에 드는 여인으로 둘, 셋 또는 넷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을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한 여인이나 아니면 너희 오른손이 소유한 것(노비)을 취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부정을 범하지 아니할 최선의 길이다.”와 같이 이슬람 초창기 히즈라역 3년(624년) 두 번의 전투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사망한 후에 내려진 계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슬람의 일부다처제는 여성 보호를 포함한 사회연대라는 윤리적 요청에 부응하여 출현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평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제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설령 결혼했어도 아내의 합법적인 이혼조건이 된다. 즉 전쟁과부들의 물질적 결핍은 국가,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충족해 줄 수 있으나 성욕은 결혼으로만 충족될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꾸란에서는 당연히 과부와 의 결혼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꾸란이 일부다처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여성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이었다. 현대사회처럼 여성이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생계를 보장받는 일은 남성에게 부양받는 일이었던 것이다(오은경, 2006).

이러한 설명은 일부다처제의 발생동인에 대한 이해는 쉽지만, 사실상 핵가족화 되고 전투적인 상황이 항시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법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 온 것이 합당한지는 비판 받아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종교적인 법이 일상에서 남성들의 편의 주의적 해결 방식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도 부정할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부다처제가 현재의 파키스탄 가족구조에서 얼마의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일반화하는 것은 분명 왜곡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파키스탄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가족부양을 위해 이주노동자로 건너 온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또 다시 새로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지는 판단해 볼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자민족중심적인 해석과 서구의 시선아래 포섭되어 동일한 남성 집단에 의해 착취되는 동일한 여성 집단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이다.

파키스탄 남성들이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 왔지만 그들은 각기 가족적 배경과 종교적 신념 그리고 경제적 차이, 학력 차이들이 다른 남성들이라는 것이며, 그러한 배경들로 인해 여성에 대한 관념과 행위방식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파키스탄 남성을 선택한 여성들 또한 각각의 가족, 종교, 경제, 학력의 차이들이 존재하며, 자신들이 관계를 맺어야 하는 파키스탄 남성의 가족에 대한 이해는 그녀의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질 수 밖에 없다.

저희는 한 5년을 사귀었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되었고요. 그렇게 지내다가 이 모임을 알게 되어서 온 거고요. 그 때 이 모임에 나왔을 때 남자들은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면 빨리 결혼해서 남편에게 안정된 비자를 주라고 그랬지요. 하지만 언니들은 그랬잖아요. 신중하라고... 지금은 좀 후회가 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결혼 할 줄 알았으면 좀 빨리했을 걸 하는... 하여튼 그렇게 지내다가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기간이 왔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자고 그를 설득했어요. 왜냐하면 그 때 나가면 입국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김애숙, 29세)

김애숙은 연애기간이 상당히 긴 5년이나 되었다. 당시 남자친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그래서 모임의 남성들은 그 정도 기간이라면 되도록 혼인신고를 서둘러 안정적 비자를 주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임의 한국여성들은 신중하라고 말한다. 모임에 나오는 여성들은 이미 결혼 한 기혼여성이었고, 남편들도 체류자격이 합법적이었다. 이에 대해 김애숙 또한 신중하게 생각하였고, 남자친구도 결혼을 서두를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이 남성이 비자목적의 연애가 아니었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으로 신뢰가 가능한 관계임

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신뢰관계가 가능했던 김애숙은 자진출국기간이 돌아오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결혼을 위해 파키스탄으로 출국한다. 이는 결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결정이 충분히 행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둘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설정한 것인가를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처리하였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남성들은 파키스탄 남성과 그를 선택한 여성들에 대해 왜곡된 언설을 유포하고자 하고 있다.

<양공주의 현실 - 현직경찰수기>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네팔 ,중국인 ,베트남 ,등등.. 한국에 10명이 오면 6-7명은 불법체류를 하는 그들 외국인들의 심각성을 한번 알려줄까 한다. 특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생김새 약간 서양인 비슷해서 얼굴이 미남형이 제법 많다. 한번은 파키스탄 청년이 잡혀온 적이 있다.(나는 현직 경찰이다) 강간하려다가 주위의 신고로 잡혀왔는데, 그 녀는 한국어를 아주 잘했다. 그 녀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가,사창가에서 한국 젊은이들 못지않게 논다고 자랑스레 말했다. 물론 비용은 한국 여자 (여대생도 있고 일하는 여성도 있다.)가 주로 대고 있다. 그리고 주된 장소가 피시방인데 거기서 한국의 젊은 여성과 채팅을 한다. 물론 영어로 하는데 우리의 젊은 여성들은 또 영어라는 그 하나에 솔깃해서 채팅 하다가 애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 녀가 잡혀 왔는데 , 한 미모의 여대생이 보호실에 면회하겠다고 울고불고 찾아 왔다. 어떻게 처벌을 면해줄 수 없냐? 어떻게 안 되겠냐? 그래서 나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 나는 정말 흥분한다. 왜 저런 날나리 쓰레기들한테 여대생이 넘어가는지..이해가 안된다..) 여대생보고 당신 부모님도 당신이 저 외국인 불법체류자와 사귀는지 아느냐? 하고 물었다 . 여대생은 모른다고 했다... 만약 부모님에게 내가 전화해서 부모님이 면회를 허락하면 나도 아가씨의 면회를 허락해주겠다고 했더니 그냥 그 여대생은 돌아갔다. 그때 울고불고 하는 여대생을 뒤로하고 그 녀의 얼굴에 나타난 음흉한 미소는 잊지 못할 것이다. 그 녀는 한국어도 잘 했는데, 나중에 그 녀와 이야기 하다 보니 자기 수첩에 있는 한국 여자들의 주소를 내게 자랑삼아서 보여주더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물었다. 이번에 강제 퇴거되면 또 올 거냐고? 그랬더니 그 녀는 당

연히 올 거라고 했다. 여권을 위조해서 다시 온다고 했다. 파키스탄은 회교국가라서 참 놀기가 안 좋다고... 하면서... 내가 보기엔 자기한테 달라붙는 여자들... 그 맛에 그놈은 한국생활을 즐기고 있는 듯 했다. (ffgfgff, 2006, <http://kin.naver.com>)

이러한 글을 분석해보면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라는 서양인처럼 생겨서 미남형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그 영어라는 것 하나에 솔깃해서 넘어간다. 따라서 한국여성들이 파키스탄 남성을 선택하는 이유는 서구적 외모와 영어라는 특징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서구적 외모에 대하여 여성이 반한다고 판단하는 이면에는 서구 남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성적 환타지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할리우드 영화나 포르노그래피를 보고 자란 남성들에게 서구 남성은 성적 파워를 상징했고, 현실의 남성과 동일시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파키스탄 남성의 성은 강한 성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강간이라는 범죄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여성의 성적 주체성은 무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파키스탄 남성을 면회하고자 하는 여성에게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는 것은, 그녀가 여대생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성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더욱이 너희 부모가 허락하면, 내가 면회를 하게 해주겠다는 이 남성의 태도는 파키스탄 남성에 대한 관계에서 이 여성의 관계를 사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제도 안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대신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피의자와의 면회에 대하여 그 권리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만 판단하면 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개인적 관계에 대하여 간섭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여자들은 파키스탄 남자의 '밤일'에 홀린다? 한국 여인들의 고달픔을 알려주던 한국 교포들의 결론은 아래와 같았다. 한국 여자들은 대부분 파키스탄 남자에게 잘 속는다. 영어 잘 하지, 생긴 것 번드르르 하지, 그리고 자신이 파키스탄 사람이라고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이나 미국, 호주인이라고 말한다. 한국 여자들은 그에 잘 속는다. 게다가 파키스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술 안 마시지, 양고기 많이 먹지. 당연 정력이 좋을 거 아닌가. '밤일'도 아주 잘 할 것이다. 그러니 한국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친년,

미친년하고 울고 있던 한국 아주머니도 자기 딸이 아마도 남자의 '밤일'에 홀려 저러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한국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소문이 사실인지, 그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에 대해서는 대사관도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 교민들은 '대사관의 업무태만'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듯했다.(중략) 어느 대사관 관계자의 말. "한국 여성들에 대한 나쁜 소문은 우리도 들어 알고 있다. 한국인 여자들이 파키스탄 남자를 보고 잘 반한다. 대체로 이혼녀, 노처녀 등 나이든 여자들이다. 파키스탄 남자들이 대개 잘 생기고 영어를 잘 하고 여자들에게 사근사근 친절하다. 그런 친절에 반해 결혼한 후, 한국에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면 파키스탄으로 건너오게 된다. 그러나 이곳에서 그들은 거의 집안에서 갇혀 지낸다. 여권을 남편들이 잡아두고 있어 한국으로 못 간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뭘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이 대사관으로 찾아온다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보낼 준비가 되어 있다.(이하생략) (이유진 기자, 2004)³⁷⁾

위의 기사는 파키스탄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미국인이나 호주인 같은 서구 백인으로 속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같은 맥락에서 서구 남성의 성과 연결 짓고 있다. 더 나아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금기시하는 술과 돼지고기 대신 즐겨 먹는 양고기를 정력에 좋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래서 밤일을 잘할 거라고 추측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파키스탄의 종교적 행위에 대한 몰이해일 뿐 아니라, 일부다처제와 하렘을 먼저 떠올리는 아랍 남성에게 대한 성적 파워에 대한 상상에서 오는 해석일 뿐이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남성들의 성적 콤플렉스에서 오는 자기중심적 해석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교민을 통해 전달되는 한국여성들의 모습은 '미친년'으로서 밤일에 홀린 여자이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한 여성들은 이혼녀, 노처녀 등 나이든 여자들인 것이다.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국교민들에게 밤일에 홀린다는 것은 곧 '미친년'이 되는 것이다. 여성이 성을 즐긴다는 것은 금기시 되어야만 하는 것이며, 성적 행위에 있어서 주도적일 수 없는 여성은 홀림에 의해 남성에게 유혹을 당하는 수동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혼녀나 노처녀가 그러한 유혹에 잘 넘어간다고 함으로서 이혼녀나 노처녀의 섹슈얼리티를 비하 하고 있다. 이혼녀에 대한 한국사회의

37) 여자와 닳컴에 올라온 글로서 프리챌 온라인 커뮤니티에 L회원에 의해 올려 졌으며, 2006년 네이버에서도 똑같은 글이 올라와 있다.

인식수준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혼녀를 뭔가 문제가 있는 여성이거나 쉽게 대할 수 있는 여성으로 상정하는 남성 중심적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노처녀도 제 때에 시집가지 않은 문제여성이며, 뭔가 부족한 여성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의 맥락에는 한국사회의 유교적인 관념의 잔존과 연관 있는 것으로 감정적 유대나 육체적 만족을 위한 성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기고, 혈통의 순수성과 가통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방편으로서만 그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기준이 이중 잣대라는 점에서 문제인데, 남성에게 있어서 성은 성매매가 필요악으로 존재해야 할 만큼 강한 성욕이 남성성의 상징이어서 적극적, 능동적, 공격적인 것이고, 여성의 성은 소극적, 수동적, 순종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우리사회문화학회, 1998).

따라서 이러한 온라인 글이나,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언설의 유포가 외국인 남성 특히 파키스탄 남성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한국여성의 성(sexuality)이 어떻게 읽히고 해석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설의 유포로 인해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들의 성적 주체성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결혼 결정 할 때, 애들... 너무 미안하지. 애들 얼굴에 똥칠하다고 많이 생각했지. 그런데 그동안 나도 애들한테 최선을 다했고, 우리나라 여자 나이가 평균 80이 넘는다고 하잖아. 아직 40년 정도를 더 살아가야 하는데, 이 생각을 많이 했어. 한국사람 하고 결혼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혼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 5년만 살다 헤어지더라도... 친구들도 많이 이야기해. 나이차가 많아서 니가 그 사람하고 평생 살 거 같냐고,,, 그런데 5년만 살다 헤어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아보는 게 ... 그런데 세관 다니는 막내 동생이 가끔 술 먹으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한다니까. 애들한테 내가 못을 박았데. 그걸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 오히려 우리 아들은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 부터는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편이야. 엄마는 이제 아픈 바람에 알게 되었지. 엄마는 그런 입장이었지. 옛날에 이 사람하고 재혼 한 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못해 기동서방이라도 사귀어라. 혼자 살지 말아라. 그런 주의였거든. 그런데 너무 어디다고 그런 소리는 하지. 내가 슈퍼 할 때 60넘은 아저씨가 있어 담배 사러 들리는... 나보고 딱 그런다. 성적인 문제 뻘에 사는 거냐고.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그렇게 내놓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김숙희, 48세, 사별 후

재혼)

김숙희는 재혼 한 여성으로 자신과 남편의 연령차이가 많이 나서 주변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 말하고 있다. 남동생은 그녀가 ‘애들에게 못 박았다’라고 말함으로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남은 인생은 중요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상대를 선택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 기간 또한 개념 치 않는다. 또한 그녀의 아들도 일주일의 시간동안 고민하고 인정하게 됨으로서 그녀의 선택은 존중받는다. 여기서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남동생은 누나의 선택에 대해 사회적인 체면과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의 신분에 대한 지적으로서 애들에게 못을 박는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혼자 된 여성, 그리고 거기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얼마나 성적으로 정절을 요구하고 있는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이면서 어린 남성과 사는 여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못 박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다르다. ‘기둥서방이라도 두고 혼자 살지 말라’고 함으로서 여성이 가진 섹슈얼리티를 인정하고 여성 또한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 살아야 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그 어머니도 남성이 어린 것에 대해 걱정함으로서 나이든 여성과 나이 어린 남성과의 관계에서 나이든 여성이 더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나이 많은 한국남성이 나이 어린 여성을 신부로 맞으면 ‘와 도둑놈이다’하면서 웃어넘기거나, 남성성이 강한 것으로 표상되지만, 연하남이 트렌드인 이 시대에도 여전히 나이 많은 여성이 나이 어린 남성과 사는 일은 균형이 맞지 않는 일인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60대 남성은 다른 사람의 부부관계에 대해 직접적 질문이 얼마나 무례한가에 대한 인식 없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성적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치부하며 이야기한 것은 김숙희가 선택한 나이 어린 남성을 선택한 것보다는 그 어린 남성이 파키스탄인이라는 외국남성이었기에 김숙희를 왜곡된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에 의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여성들이 성적인 이유로 해서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했다고 말하는 것은 한국 남성들이 서구 남성이나 아랍 남성에게 대해 가지고 있는 성적 환타지일 뿐이며, 한국 여성을 성적 주체로서

인정하지 못하는 남성적 시각일 뿐이다. 또한 그러한 기사를 사실여부에 관계 없이 올린 기사는 그러한 남성적 시각에 포섭된 여성일 뿐이며, 사실상 아직도 한국사회에 남아 있는 성의 이중 잣대로서의 관습이 의식을 지배한다 하겠다. 또한 그 여성들이 그것에 만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적 주체로서 즐길 권리가 충분히 여성에게도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성적주체란 욕망하는 인간으로서의 여성이며 성적 주체로 만드는 것은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성과 이에 대한 인식이다(이수자, 2004). 따라서 여성은 항상 성적인 부분에서 피해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성(sexuality)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그것은 국적이나 연령과 상관없는 행위인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국제결혼의 흐름 중 특히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한 한국여성들에 관한 연구로서, ‘파키스탄 커플모임’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자발적 공동체(community)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주체성을 보고자 한 연구이다.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 사랑이란 이름으로 서로를 선택하고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 가정을 이룬 여성들이 겪게 되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저항을 다룬 연구이다. 또한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일상에서 다문화로 전유하게 된 여성들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이며, 한국사회가 여성의 성(sexuality)을 평가하는 기준을 벗어나 자신의 성적 주체성을 실현하고자 한 여성들에 관한 연구이다. 또한 성과 젠더, 민족과 인종, 계급과 문화의 경계지점들을 위반하고 가로지르고 통과하면서 살아가는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차별을 어떻게 극복하고 저항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을 여성의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의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이고 또한 다중적인 주체성들이 경합하고 충돌하며 협상해가는 과정을 보여준 연구이다.

먼저 IV장의 가부장제에 대한 도전과 타협은 한국여성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법의 차별성을 보여 줌과 동시에 이에 도전하고 타협하는 여성들의 행위주체성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적 차별이 오히려 여성의 주체성을 전복하는 의미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먼저 ‘국제결혼 한 여성: 호주가 되다’는 한국의 가부장제적인 제도를 대표하는 호주제의 의미를 전복하는 여성호주로서의 국제결혼 여성의 존재를 부각시킴으로서 호주가 갖는 의미를 되 짚어본 것이다. 외국인 배우자 남성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체류자격을 위해 근거가 되어야만 했던

호적등본이 여성호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호주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

하지만 초기 국제결혼 가정에게 있어서 여성의 호주로서 권리가 완벽하게 충족 되지 못함으로 인해 문서상 완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한 자녀들은 한국국적을 얻지 못한 채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국적법에 여성들은 개인적인 소송으로 때로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 저항과 도전을 통해서 성차별적인 부계 혈통주의 국적법을 양계혈통주의 국적법으로 개정하는 쾌거를 이룩한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지 않고 국제결혼 가정의 거주권과 노동권의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모임을 결성하는데 ‘코시안의 집’, ‘네코모임’, ‘지구촌 사랑 나눔터’ 같은 것들이다. 특히 ‘지구촌 사랑 나눔터’는 파키스탄 커플모임의 몇몇 회원들이 참여했던 모임으로서 그 의의를 들 수 있으며 그 회원들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인터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출입국법의 문제점을 가시화시켜 낸 여성들은 남편들의 체류자격인 비자의 종류를 불법체류자에서 합법체류자로, 단기 체류자(C-1)에서 장기 체류자(F-1)로 취업불능 비자(F-1)에서 취업가능 비자(F-2)로 바꾸어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국가 기관 공무원들 특히 출입국 직원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면서 경험 했던 인종차별을 겪고 싶지 않아서 귀화라는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한 귀화를 선택함으로써 호주로서의 지위를 잃고 다시 가부장제적 질서에 따라 남편이 호주가 되는 경험을 하지만, 여성들에 이에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남편의 성을 자녀의 혼란을 막는다는 이유로 자신과 같은 성으로 창성하게 함으로서 여성의 성을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쓰도록 만든다. 따라서 국제결혼 한 여성들이 보여준 여성호주라는 법적 지위와 여성의 성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모습은 호주제 폐지 전 남성의 가계로만 유지되던 호주제의 가부장성을 전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다음 V장의 탈식민여성주체로 경계 넘기는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 선택한 결혼으로 인해 여성들의 주체성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탈식민적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다. 파키스탄이라는 민족적 인종적 경계가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그 자녀가 혼혈인이라는 호명되는 현실에 대해, 단일민족신화의 허구성을 탐구하고 해체하면서 인종주의 개념 또한 작위적임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성과 인종주의 개념의 작위성을 동시에 드러냄으로서 혼혈의 의미를 전복하고자 했으며, 자녀 양육에서 오는 혼혈인에 대한 사회인식이나 편견에 대하여 여성들 스스로 의식화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식화 과정을 넘어 어떻게 서구적 시선으로부터 탈식민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이나 탈식민화 과정은 일상에서 만나는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과 이해 그리고 타협을 통해 이루어 졌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이라는 공통점으로 모여 서로를 지지해주는 모임을 만든 여성들은 공동체(community)로서의 정체성의 개념을 한국과 파키스탄, 이슬람국가, 전체 이주노동자로 확대 해석해나간다. 이러한 확대 해석의 과정은 파키스탄 지진 돕기 모금활동이라든지, 9.11테러 이후 불어 닥친 테러와의 전쟁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배우자들이 단지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간주 되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한 때 불법체류자였거나, 현재 불법체류자인 파키스탄이주노동자 남성과 살면서 이주노동자와의 관계성을 친구나 동료 그리고 전체 이주노동자로 확대해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여성들의 집단적 주체성으로서의 공동체적 주체성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주체들과 살아야하는 공존의 시대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성적 주체성에 대해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왜곡된 시선 그리고 그 차별적 억압이 특히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여성들을 어떻게 성 정체화 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또한 가족관계에서 여성의 성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보았으며, 결국 그 모든 평가와 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스스로 정체화하는 성적 주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주체 형성에 있어서 여성의 경험이 근본적인 토대라고 할 때 실제로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인 조건과 경험들이 철저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의 경험 자체가 명확히 분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지역성, 인종, 역사, 생산양식 등의 차이 또한 경험을 내용지우는 중요한 변수들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이수자, 2004).

지금 한국사회는 다양한 주체들을 일상에서 만나고 있다. 이주노동자로, 결혼 이민자로, 탈북인으로, 난민으로 유입된 주체들이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결혼의 모습이 이들과 결혼하여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인종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가르며 차별과 억압을 합리화 해 온 이사회에 대하여 도전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제결혼 한 가정들은 자녀들을 출산함으로써 단일민족의 순혈주의를 이유로 혼혈인을 차별하고 소외시켜 온 사회적인 배제의 논리를 해체하고, 인종주의를 해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사회에 탈식민적이면서도 다문화적인 논의를 가져오도록 만든다.

그러므로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와 결혼 한 한국여성들을 통해 본 여성들의 주체성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는 이러한 여성의 주체성은 늘 변화하는 주체이며,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 결혼을 통해 혼혈인을 생산한 유목적 주체이며, 이러한 경계에서 발생하는 성적 인종적 계급적 등 모든 차별과 억압에 저항하며 탈식민화 되고자 하는 개인적 주체이자 집단적인 주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파키스탄남성 결혼함으로써 여성자신에게 내려지는 성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sexuality)을 당당히 실현하는 성적 주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파키스탄 남성과 결혼 한 여성들을 연구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여성들과 결혼한 남성들은 국적이 다양하다. 국적이 다양한 만큼 그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하다. 그것은 부부관계, 상대 배우자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망이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고, 문화적 차이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는 다양한 국제결혼에서 드러나는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차이와 다양성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로 발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한국사회의 법과 제도는 변화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인식도 점점 변화해나가고 있다. 현재 국제결혼 가정들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사는 일에는 무리가 없다. 귀화 또한 간소화해져 무시힘으로 면접만을 통해서 귀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도 간소해졌다. 즉 재산보증과 같은 서류 제출 대신 배우자의 취업 사실만으로도 귀화를 허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의 변경은 많은 국제결혼 가정들을 귀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한 부작용은 다른 아닌 위장결혼의 증가와 관련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가 보는 위장결혼의 증가는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 좀 다르다. 이는 현재 정부정책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바로 이주노동자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산업연수생제도의 불합리한 노동조건들로 인해 양산 된 불법체류자들이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 받을 길이 없기에 택하는 생존의 방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고, 그들을 양성화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고용허가제 도입을 시행하고자

한 시점에서 정부는 또 다시 불합리한 정책을 편다. 이는 지금까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해 오며, 기업의 생산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었던 이들을 배제하고 저임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간 체류한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양성화를 통한 사회통합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또 다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추방되고 있으며 아직도 단속의 현장에서 자신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추방의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그러한 신분적 불안함은 국제결혼을 통해서 신분적 안정을 보장받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위장결혼을 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상황을 기술한 것은 위장결혼을 한 이주남성들을 옹호하고 자 함이 아니며, 그들이 결혼을 상업적 거래로 이용하는 것을 합리화 하고자 함도 아니다.

본 연구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국제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들을 한국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국민국가로의 통합이라는 국적취득방법 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이주 노동자의 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수 없는가이다. 이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의 위장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첫 번째 문제는 우선 F-2 비자의 경제활동 보장권을 보장해줌으로 가능하다. 현재까지 노동자로서의 노동권만의 보장으로 인해 개인적 경제활동 즉 개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욕구를 제한하는 규제를 풀어 줌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귀화가 간소화되기 까지 원인이 되었던 사망이나 이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문제를 국민이 되어야만 보장해주는 제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분명 체류자격에 대한 비자의 다양성을 확보해서 각각의 사유에 합당한 체류자격(비자)을 부여하면 뭐에도 모든 해결을 국민이 되어

야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주여성이나 이주 남성이 현실적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국제결혼 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이 되지 않고서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논문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출입국 직원들과 대면하기 싫어서, 공항 출입을 하면서 불안하기 싫어서 국적취득을 한 사례는 전체 회원의 사례라고 해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출입국과 같은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출입국 직원들의 태도만 바뀌어도 귀화하는 수는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 물론 현재 출입국의 정책은 상당히 바뀌었다. 이민정책이 없다고 주장하던 출입국이 결혼 이민자라는 말을 정책에서 이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단속의 현장에서 이주 노동자와 구별 없이 일단 조사의 대상이 되는 귀화자 남성들이 겪는 억울함은 국가가 국민으로 인정하고 시민권자로 주민등록증을 부여 했다고 해서 그들이 국민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라는 현실로 볼 때, 또한 한국국민으로 한국에 거주하지만 자기 가족들을 자유롭게 초청하여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부여한 국적이라는 것은 국가가 관리감독을 편하게 하려고 취한 방편은 아닌가 한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의 문제점이다. 앞서 짧게 논의 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에서 노동자로 생계를 이어가고, 경제활동의 자원이 되고 있는 점을 인정하고, 또한 이미 숙련 노동자가 되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합법적 체류를 보장해 줌으로서 불법적인 위장결혼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은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 문헌

- 강신주(2004). 『나는 튀기가 좋다』. 금토.
- 강희(2000). “재현에서 윤리적 책임까지-가야트리 스피박”. 『페미니즘 어제와 오늘』. 한국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민음사.
- 김병모(1999). 『김수로왕비의 혼인길』 푸른숲.
- 김영희(2002). 『이슬람과 페미니즘: 최근 두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과 사회(반년간). 창작과비평사 .
- 김진호(2001).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내셔널리즘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미(2005). 『글로벌시대의 문화번역』. 또하나의 문화.
- 김현숙(2001). “민족의상징, ‘양공주’”. 『위험한 여성』. 일레인김 · 최정무편저, 박은미(역) 삼인.
- 고갑희(1999). 「여성주의적 주체 생산을 위한 이론 1 - 성계급과 성이 정치학에 대하여」. 『여성이론』 (통권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고미숙(2001).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민족·섹슈얼리티·병리학』. 책세상.
- 나종근 위음(2003). 『무함마드(Muhammad)』. 시공사.
- _____ (2003). 『꾸란(Quran)』. 시공사
- 노성숙(2004). “여성들의 지식과 진리- 포스트모더니티 철학”. 『여성이론 (통권11 호)』. 도서출판여이연.
- 박경화(2003). “탈식민주의와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고부음 위음. 문학

과 지 성사.

박노자(2003). 『나를 배반한 역사』. 인물과 사상사.

_____ (2002).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외노(外勞)인가 외노(外奴)인가?”.

『아웃사이더』 (09). 아웃사이더.

이희수 · 이원삼 외(2001). 『이슬람-이슬람문명 올바르게 이해하기』. 청아출판사.

이수자(2004). 『후기 근대의 페미니즘 담론』, 도서출판 여이연.

임옥희(2006).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주디스 버틀러 읽기』. 도서출판 여이연

우에노 치즈코, 조한혜정(2004). 『경계에서 말한다』, 김찬호 옮김. 생각의 나무

우리사회문화학회(1998). 『현대사회와 여성』. 정림사.

이태정(2004).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옥순(2002). 『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 푸른역사.

오은경(2006). 『베일속의 이슬람과 여성』. 프로네시스.

장(윤)필화(1999). 『여성 몸 성』. 또하나의 문화.

정수일(2002). 『이슬람문명』. 창작과비평사.

정희진(2005). 『페미니즘의 도전』. 교양인.

조성원(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알아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혜정(1999).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태혜숙(2001).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도서출판 여이연.

_____ (2004). 『한국의 탈식민 페미니즘과 지식생산』. 문화과학사.

2. 국역문헌

거다 러너(2004).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역). 당대.

고자카이 도시아키(2003). 『민족은 없다』. 방광석(역). 뿌리와 이파리.

가야트리 스피박(2003). 『다른 세상에서』. 태혜숙(역). 도서출판 여이연.

로지 브라이도티(2004). 『유목적주체』. 박미선(역). 도서출판 여이연.

벨 후스(2002). 『행복한 페미니즘』. 박정애(역). 백년글사랑.

_____ (2001). 「포스트모던 흑인성」, 『탈식민페미니즘과 탈식민페미니스트들』.

실비아 월비(1996).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유제분 엮음. 김지영(역). 현대미학사.

앨리슨 M 재거 · 아이리스영 편집(2005). 『여성주의 철학』. 한국여성철학회(역). 서광사.

에드워드 사이드(1991). 『오리엔탈리즘, 박홍규(역)』. 교보문고.

_____ (2001).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성일권(역). 김영사.

엘리자베스 그로츠(2001). 『피비우스떠로서 몸, 임옥희(역)』. 도서출판여이연.

자크 아탈리(2005).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이효숙(역). 웅진 지식하우스.

제인 프리드먼(2002). 『페미니즘』. 이박혜경(역). 이후.

찬드라 모한티(2005). 『경계 없는 페미니즘』. 문현아(역). 도서출판 여이연.

캐롤린 라마자노글루(1997). 『페미니즘 무엇이 문제인가』. 김정선(역). 문
예출판사.

캐서린 H.S. 문(2002). 『동맹속의 섹스』. 이정주(역). 삼인.

티나 첸터(2005). 「포스트모던 주체성」. 『여성주의 철학 1』. 앨리슨 M.
재거 아이리스 마리온 영 편집, 한국여성철학회(역). 서광사.

프란츠 파농(1998). 『검은피부 하얀가면』. 이석호(역). 인간사랑.

피터 스토키(2004). 『국제이주』. 김보영(역). 이소출판사.

3. 외국문헌

Andermahr, Sonya. Lovell, Terry. Wolkowitz(1997). A Concise Glossary
of Feminist Theory. Arnold.

Carens, Joseph H(2000). Culture, Citizenship, and Community. Oxford.

Hanagan, Michael and Tilly, Charles(1999). Extending citizenship,
reconfiguring state. Rowman & Littlefield.

McNay, Lois(2000). Gender and Agency, Polity Press.

Mahalingam, Ramaswami(2006). Cultural Psychology of Immigrants.
Lawrence Erlbaum Association.

4. 인터넷 검색 자료

파키스탄커플모임 <http://home.freechal.com/pakistan>

통계청 <http://www.nso.go.kr>

ABSTRACT

The subjectivity and agency of Korean woman who married with Pakistan migrant labor

JUNG, HYE SIL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is study for subjectivity and agency of Korean woman who married with Pakistan migrant labor. The intermarriage of Korean woman and Migrant labor who come from other country for fill up the shortage of labor power are take on new aspect on the intermarriage early 1990. This new aspect is show the change of the mean of intermarriage that is dwell in korea turn from migrate to abroad. This study is to deconstruct the social discourse of korea that distort the meaning of intermarriage.

First, according to analysis of subjectivity and agency of intermarriage woman how to challenge, struggle, and negotiate the system of Law that is sexual, racial and class discrimination.

Second, this study is to deconstruct the Myth of the racially homogeneous nation that the intermarriage woman delivery the baby whose parent different nation and race.

Third, this study is show the woman who struggle and negotiate with her husband and his culture like that islamic culture in daily life and how to appropriate multiculturalism that comprehend the islamic culture.

Forth, this study is show community subjectivity of woman who interpretate the community broadly so that recognize the change of her consciousness.

And last, I want argue woman's sexuality , because the intermarriage woman is evaluated by the social inconsistent standard on patriarchal system.